

열어붙은 대구 부동산 시장

역전세난 폭풍

최근 3개월 1337건...입주 물량 많아 더욱 심화

집값과 전셋값이 추락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 부담마저 커지면서 대구에 역전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도 많은 터라 ‘역전세 난’이 지속할 공산이 커 집주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 11월~올해 1월)간 대구에서 역전세 계약 1천337건이 이뤄졌다. 이는 최대 시장인 수도권(1만8천10건)을 제외하면 부산(1천628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원이 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 발생한다. 이번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세입자 수요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겼다.

대구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

경매시장 한파

낙찰가율 70%선도 위태, 감정이 반값 매물로

인다. 부동산R114와 부동산원이 공동 발표한 ‘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6만3천858가구에 이른다. 역대 최대치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대구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로 끝이 아니다. 내년 이후에도 입주 물량은 꾸준히 있다. 2024년 40개 단지 2만1천670가구, 2025년 20개 단지 1만19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면서 “입주 물량이 넘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매 시장엔 이미 한파가 닥쳤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구 아파트 평균 낙찰

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큰 폭으로 내렸다. 작년 4월 91.9%를 기록한 이후 작년 9월 79.5%로 하락, 80%대가 붕괴했다. 이제는 70% 선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낮은 70.4%로 집계됐다.

이러다 보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전용 85㎡)는 감정가 4억3천만원이지만 작년 11월 이후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억1천7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감정가 3억4천800만원짜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도 최저 입찰가가 1억7천만원으로 내려갔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홍준표發 70세 이상 무임승차 與·서울시도 “개편 논의하자”

연령 상향·적자 보전 동시 검토
롯데시장 요금 시스템 개선 추진

대구교통공 데이터 분석 나서
“150억원 손실분 줄어들 가능성”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타 시·도와 정부까지 논의에 뛰어드는 등 ‘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관련 데이터 분석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전 논의가 없었고, 후속 조치로 급하게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실제로 65~69세 요금을 받았을 때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2천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인 2천159억원은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 손실분이었다.

올 2월 기준 대구의 65~69세 인구는 15만916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43만4천69명) 중 34.8%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경로우대 무임승차 손실분 중 34.8%인 150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에 불을 지피자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뛰어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언했다.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 뒀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매년 무임승차 손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역사에서 한 시민이 경로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로 적자가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졌고, 지자체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알록달록 대보름 잡곡 팔레트

정월 대보름을 이틀 앞둔 3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달성양곡가게에 진열된 다양한 색상의 잡곡들이 마치 팔레트에 물감을 짜 놓은 듯 무지갯빛을 내며 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〇5면
안성환 기자 asw727@imaeil.com

尹대통령 4월 국민 방미 추진...의회 연설 이뤄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 중에 ‘국민 방문’ 형식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처럼 미 의회 연설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정상들의 방문 형식은 국민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 최고 예우 수준인 국민 방문은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공연이 포함된 국민 만찬, 구위급 환영·환송식 등이 수반된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

고,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 방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방문 시기로는 4월 무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외교 관례상 국민 방문은 초청국과 동시에 발표하고 미 의회 일정도 고려해야 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실 측은 “미국 방문 관련 논의가 양국 간 진행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영재 기자 pyc@imaeil.com



칸 앞잘 아흐메드의 인도는 지금

▶ 17면

26TH ANNIVERSARY

2023년 2월, 당신의 눈앞에 브로드웨이가 펼쳐진다!

CJ ENM

42ND STREET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

2.24~2.26 KA 2023 계명아트센터 ★★송일국★이종혁★정영주★배해선★신영숙★전수경★홍지민 외★★

주최 대구MBC 주관 파워엔터테인먼트㈜ 제작 CJ ENM S&S 제작투자 S&S COMPANY 협찬 대구보건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문의 053-762-0000 파워엔터테인먼트㈜

유치원서 ‘마스크 착용’ 공지 “자율인데 따라야 하나” 혼란

일부 보육 현장서 권고 지침
학부모 투표로 정하는 곳도
교육청 “통학차에서만 의무”

대구 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 자녀를 둔 A(36) 씨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이후에도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운 채 등원을 시킨다.

지난달 말 유치원이 아직 유치원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로 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돼 계속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탓이다.

A씨는 “아이가 말이 느린 편이라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기만 기다린터에 실망스러웠다”며 “통학버스 내부나 합창 등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착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착용을 지시하면 꼭 따라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교를 포함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곳도 나타나는 형편이다.

실제로 맘카페 등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원장님과 면담한 끝에 우리 아이만 마스크를 벗길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하기로 했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이 일률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공지하거나 학부모 투표에서 착용 의견이 우세한 경우라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까?

결론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안 써도 된다’이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집단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적극 권장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유치원 교사 B씨는 “마스크를 계속 쓰자는 의견이 일부라도 있으면, 집단 감염 발생 시 민원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 여부를 투표에 부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교사들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할까 봐 현실적으로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착용 여부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이미 나갔다”면서 “통학버스에서는 써야 하고, 일부 밀집 상황에서만 착용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허현정 기자 hjh224@maeil.com



목민정신 기리는 ‘이서공 향사’ 3일 대구 수성구 이서공원에서 ‘이서공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조선시대 판관인 이서공은 1778년 홍수기마다 신전이 범람해 민초들의 피해가 극심하자 자신의 재산을 털어 신전 제방을 축조했다. 수성문화원은 이서공의 업적과 목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통적인 향례 의식에 따라 매년 이서공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추경호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노력 연계해 재정 차등 폭 확대
농축수산물 20% 할인지원 실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

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t) 증량하고 닭고기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저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는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할 예정이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견결음

주차장·체육시설·도서관 추진
울릉에선 대피장소 활용 검토
교육부·도교육청과 업무협약

경상북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나가는 새로운 학교시설 모델이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등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도다.

경북도는 3일 포항시 포항고등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 복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경북 포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경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기타 상호합의 협력사항 등 참여기관의 협력 방안이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달 13일 영양군과 영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공영주차장 조

성)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었고 문경시와 문경중학교에도 수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날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포항시와 울릉군을 경북지역 선도 사업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학교에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울릉군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학교시설을 대피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북한 도발 등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이곳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주차장, 복합체육시설 등을 더욱 확대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aeil.com

“포스코홀딩스 주소만 포항, 시민 우롱 처사”

14일 대규모 상경투쟁 예고

포스코그룹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경북 포항으로 옮기되 직원과 시설을 배제한 주소지 이전만 예고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4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범시민대책위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주소를 포항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서울사무소에는 필수 요원만 남고 대다수 인원이 포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0년 동안 포항에 있었던 포스코 본사는 지주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는 지주회

사 역할을 해왔다”며 “(경영진들은) 무슨 이유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본사를 서울로 정했는지, 그 이유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고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줄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인재 모집이 안 되니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설립하고, 포항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리모델링해 지원 인력 소수만 두겠다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승혁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 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민주 “장외투쟁”

천공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

국힘 “우스운 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 등과 관련 파상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국민 편 가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흥흥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혹에 대

“尹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野 ‘무속 프레임’ 공세 강화

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막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도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

與 “비합리적 감성에 호소
국회 버리고 국민 편가르기”

로 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의회주의고 민주

주의”라며 “다수당이 장외에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중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기분 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탄핵요건이 안 돼 기각되면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이만희·김재원 최고위
천하람은 당대표 출마

국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

3일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대구경북 출신 후보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대표 후보에는 총 9명이 등록했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외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건설 대표, 천하람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총 18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박성중·이만희·이용·조수진·태영호·허은아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선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병호 전 의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 캠프 국민통합특보,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정동희 작가,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창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 천강정 전 제1차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거나,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들만 주리며 박성중·이만희(이상 재선)·태영호·이용·조수진(이상 초선) 의원과 원외에서 3선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다. ‘비윤’(비윤석열) 후보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있다.

첫 번째 관련 포인트는 선거인단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윤계에선 최고위원 4석 석권을 자신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표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원이 80만명으로 늘면서 당협위원장들의 ‘투표 지시’가 과거처럼 잘 먹혀들지 않는 점도 변수다. 한 지역권에서 한 후보를 밀어주는 관례를 고려하더라도 서울(박성중·태영호·김병민), 대구경북(이만희·김재원), 호남(이용·조수진) 등 후보별 기반 지역이 겹친다.

이우호 기자 uho@imaeil.com

“TK신공항 깎아내리기 놀부 심보” 洪시장, 최인호 의원 연일 비판

SNS서 ‘특별법 저지’ 대립각

“근거 없이 다른 지역 법 폄하하며
특혜 있다면 가덕도 개정하면 돼
갈등만 부추기면 둘 다 어려워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저지를 공언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지 그만 부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만약 특혜가 있다면 똑같이 가덕도 신공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근거 없이 다른 지역 법을 폄하하고 깎아내려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항하는 영남 신공항을 쌍두마차로 만들자는데 부산만 감해, 가덕도 국제 공항을 두 개나 갖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이견이 없다. 부산시장도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만 빼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철폐산중이다. 앞으로 서로 협력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 두 공항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최근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해 홍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이 신공항의 위상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점과 TK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TK신공항 건설과 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대양어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종전 부지 개발과 특별 구역 지정, 개항 시점 명시 등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상 지원 조항 대부분을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추산 14조원이 들지만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비 11조4천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 공항 활주로를 1km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4천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 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라카 수주’ 주역들 만난尹

UAE 원전 사업 노하우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의 주역들을 만나 과거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와 이후 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인들과 오찬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오찬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발주처인

UAE를 감동시킨 점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듣는 자리였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새 도약을 앞두고 모든 것이 첫 도전이었던 당시 주역들을 불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다.

당시 바라카 원전을 담당했던 임원들은 은퇴했고 중간직 간부들은 한국 본사에 복귀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 현직 담당자, 본부장, 부사장 등 실제 현장 책임자들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다. 현재 1·2호기가 상업 운영 중이며 3호기는 가동 준비를 마쳤다. 4호기는 내년 완공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UAE 국민 방문 도중 바라카 원전을 찾아 “추가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양국 간 깊은 신뢰를 거론한 바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대구경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대구경북!
다음세대를 위한 희망찬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민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갑시다!

DGB대구은행 DGB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김성태 구속기소 北 800만 달러 송금 혐의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불 건네”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폰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배우자 정경심 씨도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

법원 “제도 공정성 심각 훼손”
구속은 면해…“향소 하겠다”
아내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 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

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증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지원서에 제출한 혐의,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토록 하는 등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18년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국회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배우자 정경심 씨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배우자가 취득한 차명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허위 신고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8, 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향소해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범어네거리 전광판에 ‘尹정부 성과’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한 건물 옥외 전광판에 ‘윤석열 정부 10대 성과’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월 한 달 대구를 비롯한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4개 옥외 전광판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성과·정책 결실 10가지’를 정리한 20초짜리 영상 콘텐츠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안성만 기자 asw0727@maeil.com

“제보만으로 폭력, 위험한 수사” “경찰관 체포 행위 위축 우려”

마약사범 독직폭행 무죄 갑론을박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이 최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지역 사회 전반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1심 선고 직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검찰도 지난 2일 기소 및 항소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태국인들은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된 다른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체포됐고, 경찰의 체포 행위도 지나치게 과격했다고 주장한다. 마약 사범들이 공공책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흔한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수사 방식이

라는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행위가 용인된다면 어떤 범죄든 제보자 진술만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이라는 특성상 다소 지나쳐 보일 수 있는 제압 행위도 일정 부분 용인해줄 필요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경찰

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거칠게 체포하는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사범들의 경우 흥기를 소지한 경우가 많고, 체포 과정에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편”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향후 경찰의 체포 행위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기 기자

선비세상 전기기관차

입찰정보 새나간 정황

낙찰업체, 전문가에 한 달 전 보내

경북 영주경찰서가 강제수사에 나선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무궤도 열차) 조달구매 입찰당첨 의혹과 관련, 낙찰업체가 입찰공고 이전에 시방서를 입수해 기술자 등에게 전기기관차 제작 과정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낙찰업체 대표 A씨와 전기기관차 전문가 B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공고일(1차 공고 2022년 3월 25일, 2차 입찰 같은 해 4월 4일) 한 달여 전인 2022년 2월 6일 전기기관차 제작 시방서를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보냈다. 특히 A씨는 자신만 갖고 있는 기술을 입찰조건에 포함시켜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겠다고, 이런 사실을 외부 업체들이 문의하면 알리지 말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 조달구매 입찰정보가 한 달 전 이미 유출됐고, 입찰조건 역시 낙찰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결탁해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뒷선의 지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지난 2일 선비세상사업단의 전기기관차 조달구매 입찰당첨과 관련, 입찰에 응찰한 업체와 낙찰업체 2곳의 사무실과 집, 담당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마경대 기자 kdma@maeil.com

중부내륙고속도 상주 공검터널 운행 중 차량 화재 운전자 사망

3일 오전 11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상주시 공검면 공검터널에서 경기도 양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 승용차가 터널 입구 벽면을 들이치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도현 기자 dory@maeil.com

모 집 모 집 기 타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 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성당지국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0808	부 동 산 주 택	대지/임야/공장 ※병원 상가 신축 부지 유동인구바글바글(현 모델:월2000 만)대지450 당2500만 전숙중개물건 (사전내사 예약됨) 역세권 521-0418 No. 27170-2020-00012 서구 은리부동산영한석	나대지 급매 (경산 남천) 전원주택지 다용도로 마을골, 위치최상 토목완료 전기, 수도, 오펜수관 설치, 즉시 건축ok 419㎡/472㎡ 010-8594-8662	공장매매임대전문 100/300/500/800/1000/2000/3003 공장 매입 즉시 010-4513-3888 No. 27290-2019-00075 달서구 삼인부동산 김주호	부 동 산 교 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8825-3413
약사 구함 (최고우대) 010-4129-8000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원 황금동, 두산동, 자산동일 대 주택상가주부환영경 합자우대 황금두산, 자산지국762-4769	급매 주택 불로동 단층 대지184㎡ 방3개, 거실, 도시가스, 태양광, 마당有, 남향, 매1억8200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정종선	※신서혁신 공장 매매 500/1000(당600만) IC 3분 대로변, 신축공장. 동구 울림로 010-4879-9389	창녕 촌집 급매 919㎡ 문당 1억1천만원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국영부동산 신태우	기 타 부 동 산 대구 최고 스크린 골프장 매매 역세권 위치 최고 스타벅스 신축매매 627-5002 No. 가17-4749 달서구 장영인중개사사무소 하성운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053)251-1234 080-711-2001 F.(053)255-7886 광고로 입금계좌 대구은행 089-06-138135-001 농협 703-01-341142 매글루 : 매일신문사
홀더(주주) 모집 블록체인 Healium 재단설립 한국, 인도 시장 진출회사 ANTZ 내 유전자 LAB 180억 정부지원 010-3925-4411 주식회사 힐랜드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 급구 구합 평리동, 비산동, 내당동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남여노소 가능010-2802-6313	상 가 일 반 상 가	※신서혁신 공장 매매 500/1000(당600만) IC 3분 대로변, 신축공장. 동구 울림로 010-4879-9389	비산동 땅 이현 1,136㎡(344) 10m도로 21억 중 준공업지역 462㎡(140) 12억5천 정비공장 가능, 공 장·청고 신축차리 010-3225-1189 No. 27170-2018-00043 서구 뉴삼강부동산김정현	상인동 커피숍 264㎡ (80) 보2천 월100/골프장 매매 타석9개 룸2개 보5천 월330 가격절충 010-9294-9006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053)251-1234 080-711-2001 F.(053)255-7886 광고로 입금계좌 대구은행 089-06-138135-001 농협 703-01-341142 매글루 : 매일신문사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배달원모집 경산 거주자 우대, 경산시 진량동 진량지국 010-3536-6620	배달원모집 대산동일대 남여노소 252-7741-010-2511-1274	업무용 빌딩 수익성 물건 강추! 건4,900㎡ 매100억 월7000 053) 766-6333 No. 27260-2022-00163 수성구 왕건부동산 박성현	모 텔 인수 모텔매매 9억 대1065㎡ 객35 (용·별)시설, 위치 최상/모텔 매매 5억인수 대340㎡ 객30 월4200 이상 (단독주치) 053) 521-4949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동부동산김영기	토지 상인동 대도로 3,000㎡ 급매 100억 / 남구 대형 E/V 원룸 12m접 대도로 2번매 대370㎡ 보5억 용자9억 인수가 8억 月850 010-9008-5582 No. 27260-2022-00163 수성구 왕건부동산 박성현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년2220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피상속인 : 망 김창준 (1966.04.05. 생) 사 망 일 : 2022.10.24. 최후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85번길 24, 303호(성전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2. 4. 청 구 인 : 박순분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6번길 7, 나동 307호(성전동, 북부상가아파트)	자 본 감 소 공 고 본 회사는 2023년 2월 3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감용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50,000,000원 중 금149,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1,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감자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4. 주식회사 창원이엔지 경북 안동시 용성북1길6 (용성동, 에이스아파트상가 비동 104호) 사내이사 우 현 윤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여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모집 북구 신곡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중로지국 257-2902	배달원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모집 남대구· 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DGB Index (3일)

코스피 2,480.40 (+11.52P)

코스닥 766.79 (+2.17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110 (-0.073P)

환율 (원·달러) 1,229.4 (+9.1원)

금값 (1g) 75,890 (-1,000원)

DGB대우은행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통장 하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좋은 점

- 국민주채와 민영주채 모두 청약 가능
- 연령에 관계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공제 혜택(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국민주채와 민영주채 모두 청약 가능

연령에 관계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국민주채와 민영주채 모두 청약 가능

연령에 관계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국민주채와 민영주채 모두 청약 가능
연령에 관계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국민주채와 민영주채 모두 청약 가능
연령에 관계 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공제 혜택(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네이버 작년 매출 8.2조
영업이익은 1.6% 떨어져

네이버의 작년 매출이 8조원을 넘어섰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3일 작년 한 해 연결 기준 매출이 8조2천201억원, 영업이익은 1조3천47억원,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021년보다 20.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6% 줄었다.

서치플랫폼 등 전통적 부문뿐 아니라 커머스 and 콘텐츠 부문 등이 골고루 성장하면서 매출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돌파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 영업이익이 준 것에 대해서는 연발 성과급 지급, 주식보상비용 처리,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콘텐츠 조달비가 반영된 탓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천640억원으로 9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021년 4분기보다 17.8% 늘어난 2조2천717억원, 영업이익은 4.2% 줄어든 3천365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9천164억원, 커머스 4천868억원, 핀테크 3천199억원, 콘텐츠 4천375억원, 클라우드 1천111억원을 기록했다.

채정민 기자

현대카드 독점 계약 포기
내달 서비스 개시할 수도
편의점·스타벅스·이케아...
NFC 단말기 갖춘 곳 가능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 앞서 애플과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온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한 덕분에 리베이트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

의 법령 해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만 준수한다면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애플페이가 국내에 뿌리내릴 수 없었던 것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필요한 방식이었던 탓이다. 현대카드가 지난해 8월 애플과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두고 리베이트 논란이 번져 출시가 미뤄졌다.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라 보고 금지하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걸림돌이었다. 신기술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라든가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가 목적이려면 보상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대카드가 독점권을 포기, 배타적 거래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해법이 나온 셈이다.

다만 다른 카드사들이 곧바로 애플페이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 짐치긴 어렵다. 현대카드의 독점 조항은 사라졌으나 애플이 다른 카드사와의 계약 과정을 길게 끈다면 사실상 현대카드가 일정 기간 우선 사용권을 갖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업계에선 다음달이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가운데 애플

페이를 쓸 때 필요한 NFC 단말기를 갖춘 곳은 10% 안팎. 일단 이 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편의점과 신세제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올지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유일했던 만큼 경쟁자인 애플의 아이폰이 애플페이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1분기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가 77%로 압도적인 1위다. 하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층이 두터운 아이폰에 간편결제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을 더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파괴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MST(자 기보안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아직 전용 단말기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다.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도 확산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ell@maeil.com

부럼·오곡 가격 작년보다 싸다 땅콩만 생산·수입량 줄어 상승

정월대보름 10개 품목 조사
토마토·딸기·사과도 값 내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월대보름(5일)을 앞두고 부럼과 오곡 등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정월대보름에 주로 먹는 오곡밥과 부럼 재료 등 주요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 통시장은 12만5천300원으로 전년 대비 2.2%, 대형마트는 16만2천660원으로 4% 하락했다. 재작년까지 모든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올 해는 땅콩 이외의 품목에서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가 오른세인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현상.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상승률은 5.2% 올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과 같은 공공요금에 대폭 올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년 전보다는 5.3%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품목별로 가격 변동이

상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품목별로 양파(47.8%), 굴(23.8%), 고등어(17.7%) 등은 오른 반면 토마토(27.2%), 딸기(17.1%), 사과(16.7%) 등은 하락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관련 식재료 가격이 내려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오곡밥 재료 가격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재작년에 비해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든 점이 꼽힌다.

부럼 품목 중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땅콩의 경우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이 모두 줄어 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2020~2021년에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흉작 탓에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던 곡물류가 2년 연속 작황이 좋았다"며 "특히 재작년에 생산량이 크게 늘어 재고는 많은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은 줄어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세연 기자 ksy121@maeil.com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52포인트 오른 2,480.4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포인트 오른 766.7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9.1원 오른 1,22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성상회’ 지난해 매출 6억원 돌파

2021년보다 판매액 227% 상승
팝업스토어·SNS 홍보 등 효과

대구 달성군 소비재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달성상회'의 매출이 6억원을 돌파했다.

3일 달성상회를 함께 운영하는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상회의 판매금액은 6억2천2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매출(2억7천400만원)보다 227% 늘었다. 사업 추진 전 참여기업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등

의 과정을 거쳐 기업 맞춤형 전략을 펼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에는 네이버 상품 키워드 최적화 광고와 할인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상인점과의 공동 팝업스토어 개설, 라이브커머스 등 판매 경로를 다변화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한 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활동도 펼쳤다.

올해부터는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과 기업 사전분석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해외 판로 개척 지

원 방안도 추진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상회를 통해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업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달성상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통원 기자 tong@maeil.com

법인부동산

광고문의 및 접수 ▶ T.053)656-4448 / F.053)656-1118

법인부동산

수 성 구

최신부동산(주)부동산수성(74-0070)2720-2017-00216

★재건축초급매★
황금동 수성지구2차우방92㎡
경동초, 동도, 정화
경북고 명문학교인접 053)741-0070

동 구

동행부동산(주)부동산동행(74-0070)27140-2022-00073

※오토캠핑장 밀양
밀양강점 유원지 2,833㎡
몽양21억, 경관 최고
펜션, 카페 053)751-2800

급매★팔공산내동
4,628㎡ 1400㎡ (분할가능)
당35만
전망좋은 남향 010-5553-5152

달 서 구

KT부동산(주)부동산달서(588-0097)27230-2018-00148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대물건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칠곡 동명임야매매
당15만 110,00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010-9973-0097

★팔공산플라이빌
★단지 매매★
대231㎡~340㎡, 건100㎡

A,가구,가전,침구류
★완벽 셋팅 풀옵션
B,수영장과 조정

C,팔공산 둘레길
갯바위,도립주차장
★편리한 대중교통
010-9973-0097

D,수익형관광객숙소

★공유숙소 플랫폼 활용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정소까지 풀셋팅

E,성수기月1천만원
수익예상,평수기月300만원수익예상

F,사업자 대출 80%
매매가4억5천만 원
010-9973-0097

서 구

대동부동산(주)부동산대동(984-8200)27170-2622-00048

스타벅스 月2000만, 건380
최고상권, 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
대585, 건1740대로전
몽당39억(당2,200만)
급매(땅값도 안됨) 010-2509-9996

대지부동산(주)부동산대지(981-6561)27170-2016-00067

텔임대,보8억,月2500만원
객실40실, 매출8500이상
12억인수, (유하)
대710㎡,매출55000이상
상가有 053)561-6561

모텔,10억인수(유하)대680㎡
배관까지 들어모텔매출800이상
10억인수, (유하)
대1007㎡, 롬19실
시설 및 매출양호 053)561-6561

호텔26억인수유하,대10248㎡
롬30,산책수조,매출13억0이상
23억인수, 유하
호텔 대1150㎡, 준신축
시설최상,매출1억 053)561-6561

모텔사우나7억인수(유하)직영중
시설양호,대270,상가240만수임
3억인수, 유하
카모텔 파계사, 대863㎡
R18실, 살림가능 053)561-6561

온누리부동산(주)부동산온누리(901-0011)공시명공27170-2020-00012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용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공실無고수익물뽕뽕
8층상가 일반상업지역
대660㎡,넙치는상권
60억/2500만 010-8896-4599

개발호재초대단지앞
특급상가 일반상업,대288㎡
초대박 투자용
몽당13억9천 010-8896-4599

달구벌대로 상가 부지

초급매 1653㎡(500)
3300㎡(1000)초역세권
시청소재, 투자곳 010-3851-5504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대일원 등기 문화재청 허가
●구궁 태극성명명호의 승인과장
●아름답게 신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복명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복(상)복(하)복(하)
●노년복(하)상 후보 추천
●"복도 창기" 작사, 손기복, 동명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금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8

달구벌대로

305억 月4,500만, 용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대기업 물류창고
대3,637㎡ 2(1100㎡)년6.3%
당380만원
월임대로2000만원010-9760-5069

※3층 상가주택
7억8천인수 月300만
20M
대228㎡(69) 053)571-0455

달구벌대로체인본점

월550만 142㎡(43)
역세권
몽당17억 053)572-0410

(주)삼성부동산(주)부동산삼성(588-0099)가-13-1978

월1800지하철출구점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 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월1억2천, 전층약국
병원 대667㎡, 건3734㎡, 99억
인수, 전층 약국병원입주
7만세대 최요지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1,650㎡, 건6,877㎡, 당5,000만
100억인수,약국+병원빌딩최고자리
010-6547-4488

월1500약국병원빌딩

대285㎡, 건969㎡, 2.5억인수
달구벌 대로점, 지하철 출입구점
010-6547-4488

월3100전층약국병원

대1,040㎡, 건2,636㎡, 27억인수
전층 약국 병원입주, 사거리코너
최요지 010-6547-4488

월4700전층병원빌딩
42억 인수, 대925㎡, 건3800㎡
전층 병원 입주
대로점 최요지 010-6547-4488

상가(신축적합) 38억
대576㎡, 역세권, 재래시장/2층상가
주택, 8억, 대186.5㎡, 식당 성업중
모텔22억, 대993㎡ 010-8029-8118

6면 계속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축구 한일전, 3월에 열릴까?

日 “A매치 상대로 고려할 가치”
남미·亞 국가 대상 경기 추진
우루과이·콜롬비아 예상 후보
양국 다 방한시 성사 가능성↓

한국 축구대표팀의 3월 A매치가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3월 A매치 상대 후보로 한국을 거론하면서다.

스포츠조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리마치 야스하루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일 기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진행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일본 국가

대표팀의 3월 A매치 상대국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은 올해 첫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주간(3월 20~28일)인 다음달 24일에 도쿄, 28일에 오사카에서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소리마치 위원장은 일본의 상대국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강호를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그는 “FIFA 랭킹이 일본보다 위이고, 월드컵 단골 출전 국가가 우리에게도 곁다”라고 상대국의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의 FIFA 랭킹은 20위이고, 한국은 25위다.

이날 인터뷰에서 FIFA 랭킹은 일본

보다 낮지만 한국과의 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소리마치 위원장은 “확실히 한국도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강국이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3월 A매치 기간 친선경기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기간 유럽에서는 2024년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이 열린다. 북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는 2022~2023시즌 네이션스리그를, 아프리카에서는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이 각각 펼쳐진다.

결국 남미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 A매치 상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

축구협회는 우선 남미 국가를 상대로 초청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남미 10개국 중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자국에서 평가전 개최를 준비하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지난 해 6월 방한 경기를 치른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를 제외한 6개국이 후보다.

앞서 남미 언론에서는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3월에 한국, 일본을 방문해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모두 방한할 수 있다면 한일전 성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종연 기자 shyoun3@imaeil.com

손흥민, 맨시티 상대 연속골 도전

6일 오전 EPL 22R 토트넘 홈경기
최근 폼 되찾으면서 득점포 기대
亞 선수 최초 기록 달성까지 ‘3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멀티골을 쏘아 올린 손흥민(토트넘)이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포를 조준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6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리그 5위(승점 36)에 머물러 있는 토트넘이 다시 4위 싸움을 펼치기 위해선 이번 맨시티전 승리가 꼭 필요하다.

최근 담낭암 수술을 받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벤치를 비운 가운데, 토트넘은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승점 39)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2위 맨시티(승점 45)를 넘어야 한다.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바로 주축 공격수 손흥민이 직전 FA컵에서 폼을 되찾고 멀티골을 기록한 것.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그는 지난 달 29일 첼피언십(2부)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 FA컵 32강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팀의 3대 0 완승에 앞장섰다.

지난달 5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EPL



EPL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프레스턴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피언십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FA컵 32강전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린 뒤 팀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19라운드 원정 경기 이후 5경기 만에 나온 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에서 총 8골 3도움(EPL 4골 3도움·UCL 2골·FA컵 2골)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유독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할 때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간 맨시티와 16차례 만나 7골 3도움을 올렸는데, 특히 토트넘이 현재 홈구장을 사용한 2019년 4월 이후 홈에서 열린 4차례 대결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4경기에서 토트넘은 모두 승리했다.

현재 EPL 통산 97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3골을 추가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통산 100골’을 달성한다.

신종연 기자

듀플랜티스, 장대높이뛰기 또 신기록

시즌 첫 경기서 6m10 달성 유일
“좀더 조정하면 세계신 노려볼만”

역대 최고의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평가받는 아만드 듀플랜티스(스웨덴·사진)가 시즌 첫 경기부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듀플랜티스는 3일 스웨덴 옅사라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첼린저 미팅 몬도 클래식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에서 6m10을 넘었다. 세계육상연맹에 따르면 시즌 첫 경기에서 6m10을 넘는 것은 듀플랜티스가 처음이다.

보통 시즌 초에는 선수들이 페이스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 최고기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기록들이 나온다. 그러나 듀플랜티스는 시즌 첫 경기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향해 도전했다.

6m00을 2차 시점에서 넘어 우승을 확정된 듀플랜티스는 6m10을 3차 시기에 넘었다.

이후 바를 6m22로 높였다. 자신이 보유한 남자 장대높이뛰기 실내의 통합 최고 기록 6m21을 넘어서는 의도였지만, 넘지 못했다.

그는 경기 뒤 스웨덴 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6m22에 매우 근접했다.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시즌 첫 경기에서 6m10을 넘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미세한 조정만 하면 세계 기록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연 기자

‘팀당 14경기’ 야구 시범경기
3월 13일 5개 구장에서 스타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3시즌 KBO리그 시범경기를 3월 13~28일에 걸쳐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개막전은 부산(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 대구(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 창원(LG 트윈스-NC 다

이노스), 고척(kt wiz-키움 히어로즈), 대전(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

그라운드 공사 등이 예정된 4개 구장(인천-잠실-수원-광주)에서의 경기는 공사 기간만큼 제외됐다.

시범경기는 모두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하지 않는다.

한은수



새처럼 날아서...

미국의 달린 마르첼리니가 2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 시티의 디어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국제스키월드컵 첫날 남자 모굴 결승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모굴은 1.2m 높이의 둔덕(모굴)이 약 3.5m 간격으로 놓인 코스를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승선까지 두 개의 점프대가 설치돼 턴과 공중 기술을 소화하는 종목이다.

한은수

일반부동산

달성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달성군가8-321

테크노 특급공장 매매
대25,935㎡, 건14,052㎡
고15M, HOIST12대(30T동)
당268만원 010-4504-6532

공장매매/국가산단 달성2차
대16000㎡, 건7300㎡
대3309㎡, 건2458㎡
010-4504-6532

★테크노폴리스★
★지원시설 내 상가 임대, 매매★
대지1950㎡(590), 건물948㎡(287)
30평10칸 010-6292-0203

북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창고, 공장★
대255㎡, 건83㎡
충고6m, 최신속
4억2천 010-7437-5535

■한백공인중개사(김성현, 북구)가15-2624
★창고, 공장★
대145, 건45
농산물시장근
16억9000 010-8588-7112

■한백공인(조재홍, 김천혁신도시가18-1197)

은행 단층 통상가 月900出
상업지역, 대구북구
신도시, 대888㎡
건600㎡, 매35억 010-6833-5433

이케아입점사거리 코너상가팔
매20억
대구안심지구
대530㎡, 4면도로접010-6833-5433

브랜드입점1층상가 보8천, 月320出
35M
도점
대전동
대지권216㎡
건120㎡, 매11억5천010-6833-5433

무인텔+호텔부지 김천구미 KTX역
독점 숙박비 9만
상업지역, 대2,685㎡, 건2,357㎡
매115억 010-6833-5433

대형 스크린골프 신규 주차 150대 대출80%
초급매, 전용920㎡
전용테라스有
김천혁신 KTX 역세권, 1.3만세대
매25억(임대가능) 010-6833-5433

KTX 초역세권 땅 상업지역, 주복가능 급매물땅값만
대1973㎡, 건2080㎡
김천혁신12개공공기관6,000명상주
1.3만세대, 매70억 010-6833-5433

달서구

■LG부동산백종수, 달서27230-2022-00088

★투자 최고땅★
KTX성주역예정지, 대로점, 계획관리
1,300㎡, 3.3㎡당56만, 식당·카페
적지, 시세이하 053)643-8988

※커피전문점※
1.2층복층, 230㎡(70), 보3천
월300, 권시4500, 7호광장 최요지
황금성권 010-9995-2299

남구

■부자공인(최원정, 남구)27200-2022-00002

※모텔 급매
모텔물건
다량보유
대지772㎡, 료30, 물건다량보유
월6000出, 용有
053)263-7101

※호텔 급매 20억인수
대1,056㎡, 료35
월1억出, 장부공개 053)263-7101

대구시내모텔부지 다량보유 상담

053)263-7101

동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평화시장대로변 상가 826㎡(250)
당2,300만, 급매 053)942-4080

■금상부동산(홍세호, 동구)27140-2018-00149

모텔 동촌유원지 최고위치
1800만원/3.3㎡ 053)984-3450

■금상부동산(백정, 동구)27140-2016-00053

공장창고신축매매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평광동
대180~240, 건90~110
다수, 당380만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방촌동
대지180~250㎡
건평80~150㎡다수
당620~650만 053)964-4849, 010-5100-5400

수성구

■유영공인(박성현, 수성)27260-2016-00126
급
月9000/100억(대출80억안고)
병원독점 내과 치료 정형외과 신
경과 이비인후과 약국 대형프랜차이즈
골프존등, 사거리코너, 수도권신축빌딩
대1700㎡, 전면종교 010-3701-0772

급, 초대형 사무나, 46억
월9000/100억(대출80억안고)
대지, 감정가75억, 평일700명대~주말
1300명대, 물세 거의없음, 투자가치
높음, 주변독점 010-3701-0772

급매, 月1010 29억(협의)
주차장 건물, 대지1,350㎡, 사무실
식당, 세차장, 대형건물 고정주차장
장기투자자로최선 010-3701-0772

■동진부동산(권영철, 수성)가16-3703

■범어동대로상가
매3억5천, 보2천, 용2억
1억3천인수, 월150만出
25%DC, 초급매 010-3509-4725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17-00171
신무동순환도로위 대지620㎡
조절불가
팔공산
당150만 053)765-9881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月950
최요지 대대로코너
대526㎡, 건901㎡
20억인수 053)762-6100

스타벅스초급매 月2300
DT 코너 상업지역
대1100㎡, 건560㎡
30억인수 급매 010-5683-6100

■동남부동산(최재영, 수성)가17-7501가16-1501

팔공산 땅넓은 주택 당180만
대2547㎡, 건237㎡
일반음식점 용도
053)761-7501

범어동아파트정문앞 상가주택
대360㎡, 건387㎡
신축또는리모델링
당당65억 053)761-7501

월1500 병원약국, 역출구대로점
대135, 대단지앞 매43억
수성구, 대단지앞, 매85°
공실無, EV, 주차, 매22억

월700 대단지코너, 병원, 공실無
대18억010-6630-8648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月950
최요지 대대로코너
대526㎡, 건901㎡
20억인수 053)762-6100

3층통상가 수성구 대로변
상업지역
대490㎡, 맞은편 2,600세대, 재개발
진행중, 신축병원부지추천, 땅값으로
매매당3500만 010-8632-3100

경산시

물류 창고 공장 창고
혁신도시 2000°
와촌IC 대700°
9,000°, 당88만
010-9468-5022/ 010-3502-0332

구미시

■보리공인(윤영란, 구미)가17190-2020-00106

신축주인 세대, 330㎡(100)
건591㎡(179)
16가구(원룸8+미투7+주인세대1)
종합병원인접, 최고요지, 월세455만
자부담7600만원 010-6522-9200

■양지공인(권영철, 다산)가4244-000049

★다산준주거 공장
급매, 대674, 건324, 고12.5M(10×8도
점2002년준공, 입주6개월여유, 물류
창고추천, 급매협의 010-2878-8945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급급매 고령IC
대470, 건150, 사30, 전기90kw
호이스트 5t x 1, 용량5억2천
054)956-9080

동고령일반산업 단지 매매
공장용지, 대12,049㎡(3645) 최상위치
★공장·창고, 개진면 개포리★
대2800, 건1027 010-6292-0203

성주군

★참외재배답매매
성주, 선남면 명포리1004
2,466㎡(746), 2025.9.25임대 안고
당25만, 주인직 010-9355-2386

영양군

캠핑·야영지·농원 수비면
신원리 24번지
약2000평, 야영지및
식당 겸 농원 010-3507-6366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다산준주거 공장
급매, 대674, 건324, 고12.5M(10×8도
점2002년준공, 입주6개월여유, 물류
창고추천, 급매협의 010-2878-8945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급급매 고령IC
대470, 건150, 사30, 전기90kw
호이스트 5t x 1, 용량5억2천
054)956-9080

■한양수성공인(배한철, 수성)27260-2021-00122

FOUR-IN-ONE

건강 기능성 수제화의 名家 - 2022 '닥터프렌 / DOCTOR FREN'

정장화, 운동화, 등산화, 골프화, 조깅화,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까지

한 켤레면 충분하다

포인원 만능슈즈

- 일상의 모든 활동을 한 켤레로 커버하는 편리성
- 발의 피로를 흡수해 많이 걸어도 뛰어도 편안한 신발
- 악취는 원천차단, 몸을 바로 잡아주는 자세교정까지
- 소프트한 천연소가죽에 300g대의 초경량!
-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는 글로벌한 디자인
- 한국인의 발모양에 잘 맞는 인체공학적인 설계
- 용천혈을 자극해주는 용수철 건강지압봉 내장 깔창

100% **국내생산**,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특허 3종의 건강깔창, 강력한 **미끄럼방지 엠보싱 창**, 안락한 **착화감**특이한 발 형태도 잘 맞는다 / 여름철에도 땀이 차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다이얼 방식으로 신고 벗기 편하다 / 부드러운 외피로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다세계적인 특허 "오솔라이트" 깔창
오솔라이트 향균깔창은 여름철에도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최고급 천연소가죽 외피
더운 여름철에도 땀이 차지 않는 완벽한 통풍성3종의 특허 깔창
악취차단, 건강지압봉, 자세교정끈없이 편리한 프리락
활동에 맞게 강도조절미끄럼 방지 밑창
등산, 골프, 트레킹, 등
각종 스포츠 및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엠보싱 밑창모델명: DF-1
색상: 블랙 (남녀공용)남성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여성 사이즈 230 / 235 / 240 / 245 / 250 / 255mm모델명: DF-3
색상: 브라운 (남녀공용)**뛰어도 걸어도 산에 올라도 험한 작업을 해도 만능슈즈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신발의 개념을 바꾸는 뉴올인원 만능슈즈는 정장신화화와 트레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진가를 발휘한다. 기본 등산화나 트레킹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방습, 방한, 방열, 방취) 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고급 등산화, 트레킹화에 사용되는 고급소재만 제작하였다. 뉴올인원 만능슈즈는 발의 형태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며 어떤 일을 하던 최적의 보행조건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만능슈즈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유용한 제품이다. 수 십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족도, 닥터프렌의 2021 신제품 뉴올인원 만능슈즈가 출시되었다. 최상의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마치 양말을 신는 듯 가볍고 부드러움이 압권이다.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에 기능성을 부가하여 기존 신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한다. 강렬하면서 부드러운 밑창은 완벽한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등산화, 골프화, 각종 스포츠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래 걸어도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특수 고무

재질로 만들어 졌다. 또한 내장된 깔창은 3종의 특허를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되어 자세교정, 탈취효과가 탁월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기존의 신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착화감을 보여 처음 신는 신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다. 몇 년은 신는 신발처럼 발의 모양에 따라 발을 감싸주어 발의 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도 불편없이 잘 맞는다. 뉴올인원 만능슈즈는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퀄리티와 내구성이 다른 신발에 비해 우수하다. 최고의 천연소가죽은 기존 신발이 발에 잘 맞지 않은 대부분의 특이 발형태를 가진 사람에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당노나 발의 기형으로 인해 기성화를 신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만능슈즈는 걱정없이 신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발끈이 없고 다이얼로 조절하기 때문에 벗고 신기가 편하다. 강철처럼 강한 프리락은(Free lock)은 등산, 낚시, 험한작업시에도 줄이 풀릴지 않아 더욱 안전하며용도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천연소가죽도 등급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은 가죽의 표피만을 사용합니다. 표피를 벗겨낸 소가죽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 가죽을 일명 코팅(액션)가죽이라 합니다. 이런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가죽의 통풍구를 막아 땀이 차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죽을 사용한 신발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해 천연소가죽이라고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 올인원 만능슈즈는 최상의 천연소가죽으로 가죽의 표피를 사용하여 통풍성과 신발의 부드러움이 액션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연소가죽 제품을 만나보세요.

**100% 국내산, 6개월 무상 A/S 보장
불만족시 100% 반품, 환불보장!****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 일요일, 공휴일 주문가능)**1899-3570**농협 301-3873-1472-31 모던산업(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카페 '포켓'의 모습. 통유리창 너머로 수성못 동쪽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낮 비추는 하얀 모던함

카페 민지(MZ)



수성못 인근 터줏대감 '포켓'

대구 수성못 인근에 카페가 많은 건 이미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어지간한 브랜드는 모두 있고,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건물 1층에도 지난해 소개한 아트플렉스(지난해 11월 12일 자 매일신문 8면)를 비롯한 여러 카페가 수성못을 바라보며 입점해 있다. 많은 카페들 중 두산오거리를 지나 호텔수성으로 들어오는 '수성못길'에 위치한 카페 '포켓'은 인근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들 중 터줏대감 역할을 자처하는 곳이다.

◆서울에서도 벤치마킹한 인테리어

'포켓'의 위치는 이름과 달리 수성못 길가에 접해 있어 찾기는 수월하다. 거기에다 하얀색으로 도배된 외관과 통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수성못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장 큰 요소다.

건물 외벽은 요즘 말하는 '빈티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의 흰색 타일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하얀 건물을 훑어보다가 2층을 보면 영어로 'pocket'이라는 노란색 글자가 눈길을 끌고 손님들의 발길까지 끌어당긴다. 2층 면적의 절반은 테라스로 꾸며져 있는데, 이곳에는 빨간색 의자들이 있어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더군다나 2층의 경우 중간에 섬이 있는 수성못 동쪽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해가 지면 '포켓'은 또 다른 느낌으로 변신한다. 낮에는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던 흰색 건물은 내부의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 통유리창을 통해 뿜어져 나오면서 포근함을 더한다. 2층의 둥근 조명은 마치 달처럼 손님들을 반긴다. 그렇게 '포켓'은 밤이 되면 도시의 일과에 지친 사람

들이 수성못을 바라보며 쉼 들어가고픈 포켓 주머니처럼 변한다. 이곳을 들른 한 손님은 "포근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좋았다"며 "일 때문에 포장만 해서 나온 게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들르게 된다면 매장에 머물러보고 싶다"고 말했다.

'포켓'의 외관과 인테리어는 도형윤 대표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아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 도 대표는 '포켓'의 인테리어를 직선과 원이 어우러지는 '젠' 스타일로 꾸몄다. 수성못이 도시의 숨터이기 때문에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함께 주면서 편안한 곳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

도 대표는 "카페가 문을 열었던 초기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창적인 스타일로 평가받았다"며 "그래서 4, 5년 전에는 서울 등지에서 '포켓'의 인테리어를 벤치마킹하려고 내려와서 보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물 외벽 요즘 감성의 빈티지 직선·원 어우러지는 '젠 스타일' 서울에서도 인테리어 벤치마킹

커피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어떤 직원이 와도 맛은 안 변해 철 따라 다양한 과자류도 즐기



◆훌륭한 커피 맛 안 보고 가면 섭섭해

도 대표는 "'포켓'이 인테리어로 주목받긴 했지만 커피와 음료도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커피 원두의 경우, 도 대표 뿐만 아니라 '포켓'의 직원들이 계속 확인해 가면서 맛과 품질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켓'의 커피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다.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경우 포트필터(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분쇄한 커피 원두를 담아 끼우는 도구)에 탬핑(분쇄한 커피 원두를 포트필터에 눌러 다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어떤 직원이 와도 커피 원두가 변하지 않는 한 커피 맛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했다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커피 종류에 따라 원두를 달리 쓴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개했던 대구 지역 '라떼 3대장'(지난해 12월 10일 자 매일신문 8면)처럼 라떼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아닌 다음에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라떼 원두를 구별해서 쓰는 곳은 찾기 힘들다. 거기에 디카페인 원두도 있어서 총 3종의 원두를 커피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커피에 자신이 있었던지라 한때 '포켓'에는 유럽의 카페처럼 에스프레소를 서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바' 공간도 있었다. 지금은 인테리어를 중간에 재검비하며 없어졌지만, 대구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시도이기도 했다.

바닐라라틴 라떼도 주목할 만한 음료다. 바닐라 파우더나 시럽이 아닌 바닐라빈을 직접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바닐라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료다.

◆'젊은 카페'로 기억되고 싶은 곳

'포켓'의 메뉴 중에는 건물의 흰색 외관을 보면 떠올릴 수 있는 아이스크림 관련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스크림 라떼를 포함,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아포가토'와 라떼 위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가는 아이스크림 라떼도 여럿이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는 인기 메뉴다.

베이커리 종류도 놓치면 아쉽다.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와 디저트 과자 종류가 있는데 때때로 메뉴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던 당근 케이크와 딸기 철을 맞아 만든 딸기 케이크 등 4종류의 케이크와 차게 해서 먹는 슈크림, 그리고 마들렌, 테린느, 버터바 등 다양한 과자류도 손님들의 눈길과 손길을 붙잡는다. 한 네티즌은 "치즈 케이크가 겉보기에 양이 적어보여서 맛있으면 하나라도 했는데 맛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독특한 외관과 인테리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커피의 맛, 다양한 베이커리류 때문에 '포켓'은 이미 대구의 젊은이들이 수성못에 오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됐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 기반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도 '포켓'의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2층의 노란 'pocket' 간판과 통유리창 너머 보이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손님들도 많다.

도 대표는 '포켓'이 대구 시민들에게 '젊은 카페'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도 대표는 "수성못 인근의 다른 카페들을 비교해 보면 '포켓'이 가장 젊은 감각으로 승부하고, 실제로 찾아오는 손님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며 "직원들에게도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젊은 카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화섭 기자 lhssk1@maeil.com

한밤 녹이는 노란 포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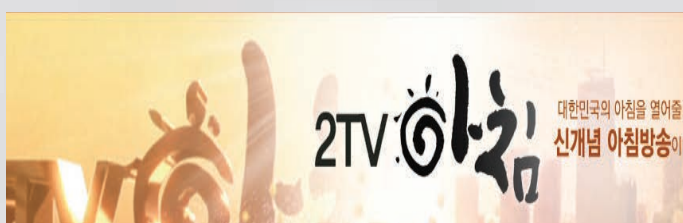
카페 '포켓'의 아포가토(왼쪽)와 아이스크림 라떼.



밤 시간의 카페 '포켓' 외부. 노란빛의 은은한 조명이 포근함을 준다.

등산복 / 작업복 / 골프웨어 / 남성복 / 여성복 / 상품 다양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국내 유명브랜드) (KY 어패럴 본사 1층 800평) (매주 수시 신상품)

전품목 매장 방문시 **추가할인**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봄맞이 초저가 창고 대 방출!)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가격파괴 창고형 의류 판매장!)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
(불황타파! 초저렴의류 할인매장)2015년 7월 16일 MBN '리얼다큐 숨'
(대한민국 최저가를 찾아라)2015년 5월 6일 채널A '관찰카메라24시'
(창고 대개방~! 쇼핑v특구)

생산원가이하 최저가 공장형 상설매장!

매스컴에서 극찬한 바로 그곳~ **KY어패럴** 골프웨어 등산복 등 다양한 상품

2015년 5월 06일
채널A '초특가로 모십니다'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2015년 9월 01일
KBS2 '생생정보'

2016년 6월 0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정상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판매

2015년 5월 6일
'초특가로 모십니다'

이월 제품
오버 생산 제품
수시 입고

2015년 7월 17일
MBN '리얼다큐 숨'

단체복 주문가능
소매·도매 판매
대량구매 문의가능

2015년 9월 1일
KBS2 '생생정보'2016년 6월 8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2017년 4월 14일
TV조선 '행복한 저녁'

KY KY어패럴

문의
전화

053)591-6328

성서공단네거리
대구 비즈니스센터
뒷편KY(케이와이)
어패럴성서로 45길
성서복합
유통단지비즈니스센터
대구
은행

성서공단네거리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주소 : 대구 달서구 갈산동 산 57-1

KY어패럴은 연중 무휴이며 설, 추석 당일 및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휴무합니다.

“경험이 교과서보다 중요…자신감 갖고 배운대로 하면 성공”



출향 경제인을 만나다

〈15〉이구목 애플러스케이 대표

공군호텔 등을 전문경영하는 이구목 애플러스케이 대표이사는 웨딩업계의 전문 CEO로 손꼽힌다. 최저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의 비결이다. 위탁경영업과 단체급식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 신화를 써온 이 대표이사는 “교과서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에 대해선 “요즘 참 똑똑하다”라고 평가한 뒤 “자신감을 갖고 배운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호텔에 군(軍) 이름이 들어가 있다. 공군호텔은 어떤 곳인가?

▶육·해·군 모두 군별로 호텔을 갖고 있다. 대부분 현역과 예비역들이 이용한다. 지금은 일반 고객도 많다. 객실과 식당 등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웨딩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공군호텔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결혼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다만 공군호텔과 다른 군 호텔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현역들이 주요 대상인데 어떻게 잘 모셔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호텔 경쟁력은 시설·환경과 음식에서 나온다. 음식의 경우 뷔페뿐 아니라 일식을 제외한 모든 요리를 다룬다. 무엇보다 가성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밖에 비해 우리 음식이 3분의 1 정도 가격이니 경쟁력이 생긴다. 실비로 장병 복지를 해야 하고, 일반인을 상대해야 하니 더 뛰어야 한다.

—이쪽 분야에 뛰어들 계기는?

▶공군 명예퇴직 1호로 물러나고 나서 놀이시설과 예약장을 갖춘 드림랜드라는 곳에서 일했다. 가서 생활하다보니 남의 돈만 벌어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독립하기로 했다.

올타리를 박차고 나온 뒤 이 대표는 월 월 낳았다. 용산웨딩타운 하나예약장을 시작으로 한가람예약장, 궁전예약장 등에 손을 댔고 한 때 4~5개의 웨딩홀을 운영할 만큼 성공적인 경영인 삶을 달려왔다. 진짜 능력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공군호텔을 위탁경영하면서 보여졌다. 2003년부터 10년을 경영한 뒤 공군 요청으로 1년을 더 운영했다. 단순 월급쟁이가 아니었고 순이익의 15%를 인센티브로 받는 조건을 내건 승부수가 통했다. 얼마나 경영능력이 뛰어났는지 국정감사 때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왜 다른 군은 공군처럼 운영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칠 정도였다. 해군에서

운영 제의가 들어왔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수락하지 못했다. 대신 군인공제회를 8년 운영하면서 반석 위에 올려놨다. 한 동안 자신의 사업을 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공군 운영을 맡기에 이른다.

—다시 경영하게 되니 어땠나?

▶한동안 장군 출신들이 회관을 책임졌는데 적자가 커졌다. 카테고리에 갖혀 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모든 예산도 경제부처에 신청해야하고, 수익이 나면 다 돌려줘야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운영을 다시 맡은 지 3개월만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호텔로 가지 않고는 답이 없겠더라. 시설환경을 호텔급으로 만들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품질을 높였다. 그렇게하지 않고는 어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로 직원 인건비 주기도 힘들었을 텐데.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받았다. 직원이 쉬는데 월급 70%는 다 줬다. 이 때 무너진 호텔과 웨딩업체가 정말 많다. 예약장 하려면 100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레도 버텼다. 코로나 첫 해 3억8천만원, 이듬해 1억2천만원 모두 5억원 적자를 봤다. 지난해 만회했고, 순이익 10억원을 냈다.

—노하우를 들려 달라.

▶시설·환경, 상품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객실은 무궁화 5개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웨딩홀을 갖춘 호텔은 음식이 경쟁력이다. 음식 싸움이다. 상품이 좋아지면 그 다음은 서비스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손님이 맛있고 편안하게 드시고 가도록 해야 한다. 밀물썰물 같은 것이 이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특히 음식은 가성비가 맞고 저렴해야 한다. 모든 식당이 최고의 식재료를 쓴다고 하는데 직접 사장이 체크해야 한다. 최고의 양념은 ‘정성’이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내놓아야



이구목 애플러스케이 대표이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며 프로근성을 강조했다.

이우성 객원기자

웨딩 경쟁력 갖춘 공군호텔
작년 적자 만회 순이익 10억
객실 무궁화 5개, 뷔페 우수
남기는 메뉴 발생 즉시 개선
직접 조영·청소 상태 체크도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빛 보일 때 가장 행복한 순간



오찬 예약을 한 고객을 찾아가 불편함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있는 이구목 대표.

이우성 객원기자

한다. 또 뷔페의 경우 반응을 꼼꼼하게 살핀다. 1천 명이 드셨을 때 남기는 메뉴가 있다면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즉시 바꾼다. 같은 가격이라도 늘 새로운 음식을 먹도록 메뉴 구성에 변화를 준다.

—직접 서비스에 나선다고 들었다.

▶직원들이 모시지만 사전에 온도는 적당한지, 조명은 어둡지 않은지, 청소는 잘 돼 있는지 하나 하나 쟁긴다. 고객에게 집보다 좋은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손님이 오시면 그 방에 들어가 ‘좋은 식사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중간에 또 들어가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해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라고 인사 드린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민고에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부르시더라. 한민고를 설립했는데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재워야겠다. 그런데 책임자가 없다’며 내게 운영을 당부했다. 알다시피 군인 자녀들은 모교도, 동창생도 없다. 이 나이가 되면 후진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 정말 보람을 느낀다. 10년 가까이 내가 만든 밥을 먹고 학생들이 많이들 명문대에 진학했다. 적자가 나더라도 해나가야겠다. 매년 학생 만족도 조사나 교육청 평가에서 높은 점

수를 받고 있다.

—새해 계획은

▶경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부가가치창출 아닌가.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려면 그 과정을 내실화 시켜야 한다. 사장이 지킨다고 음식이 잘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가고 하면 망한다.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

▶요즘 젊은이들 참 똑똑하다.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배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공 빨리 할 수 있다. 배우지 않은 다른 길을 택하면 백전백패다. 대구경북인들이 정치에 민감한데 그런 데 신경쓰지 말고 전문가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기 전까지 대단히 어렵게 살았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 대표는 최근 고향 후배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한 특강에 대해 소개했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공할 때, 빛이 보일 때 행복한 겁니다.” 80을 앞둔 나이에도 경영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영원한 보라매’의 당부였다.

송신용 기자 ssyt06@imaeil.com

이구목 대표는

14시간 근무 일벌레
성실성·겸손함 겸비
영원한 보라매 열정

이 대표의 DNA를 관통하는 두 키워드는 애항심과 공군이다. 고향이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라면 공군은 삶의 터전이다.

구미 선산이 고향인 이 대표는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활동에 적극적이다. 류목기·강보영 전 회장, 양재곤 현 회장의 추대위원장으로 뛰었고 현재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재경 구미향우회장 때 대학생들을 위해 만든 서울 성북구 소재 구미합숙소에도 정기적으로 들러 학생들을 격려하고, 삶의 지침을 들려준다.

구미 선산이 고향이다. 출향 후배들을 향해선 “고향에서 아무 것도 가져올 생각 마라. 무엇 하나라도 들고 가라”고 강조한다.

30년을 공군에서 복무한 보라매다. 입관 5년 만에 상사, 34세에 공군부사관 대표인 공군참모총장 주임원사, 38세에 준위로 임관했고 주영복 장군 등 5명의 공군참모총장을 주임원사로서 보좌했다.

오늘의 이 대표를 만든 것은 타고난 성실성과 겸손이다. 또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빼놓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을 우려한 그는 식용유 가격이 치솟을 것에 대비해 사전에 물량을 확보했다. 스테이크 용 안심이나 전복도 발품을 팔아 직접 챙기고 있다. 어려서부터 매일신문을 구독했다는 그는 뉴스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매일 오전 9시면 출근해 밤 11시 퇴근하는 일벌레다. 직업상 결혼식에는 참석 못하지만 장례식에는 반드시 가는 인간적 면모가 있다. 공군전우회 부회장,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회 부회장, 어린이재단 서울 후원회 이사를 지냈고 미군 공군성장관 공로훈장, 공군참모총장 표창, 대통령 표창, 무궁화 대상 등을 수상했다.

송신용 기자

행복한미래가 있는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개인, 웨딩샵, 스튜디오

광고문의 : 251-1234



국내 수임결혼정보 초혼
전문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공직·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연동101호) 대구006-38

국내 한국결혼상담 초혼
국제 전문(의사, 법조인, 공직)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육소장 전문직 상담)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제 대구·북구·국제-22-0001호
한국결혼정보연합회
국제·국내·초혼·재혼
베트남·캄보디아 전문,
그 외 중국·필리핀 등

웨딩클럽(대구 북구 등록업체)
*무자본 영입으로 사업하실
소장님들을 모십니다*
국제담당 010-2666-2424
국내담당 010-7724-0089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진산철학관
사주, 직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생, 병명임이 고생하는분,
진절성명, 축삭선지,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림역 3번 출구/달사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형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33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
010-5877-3336 / 010-3824-5775

혼기나는
조립식전기온돌 판넬
견식온수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1파이프 수명과 동일
W 우전산업 우전출가나
40년 전통의 바더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파산 면책/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정일
80년 연유한 가발! 셀모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중서)

* 당일내)가발 티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1 · 등 · 광 · 고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우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매일신문사

무탈한 일상이 그리울 때...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캐스린 니콜라이 지음·허형은 옮김/
문학동네 펴냄

리틀 포레스트, 윤식당, 여름방학, 효리네 민박... 몇 년 전부터 스크린에 힐링 콘텐츠 열풍이 불었다. 프로그램 속 출연진의 목표는 단 하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 무던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지켜보는 게 시청자의 일이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계절의 날씨를 온전히 느끼고, 제철 농작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과 나뉘 먹고, 포근한 이불에서 잠을 자는 모습은 현실에 치여 쫓기듯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선사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치열한 삶에서 어떤 ‘쉼’이 필요할 때 몇 년 전 봤던 힐링 콘텐츠를 틀고, 또 틀고, 다시 트는 이들이 많을 지도 모른다. 고백하건데 애청자였던 기자 역시 그렇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ON’에서 ‘OFF’ 모드로 전환이 필요할 때 지겹도록 봤던 프로그램들을 다시 본다. 희한한 건 수없이 같은 장면, 같은 일상을 봐왔어도 지겨움은 없고 마치 TV 속 일상에 내가 있는 듯 그 자체로만으로도 휴식을 찾게 된다.

무탈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 무던한 일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언뜻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탈’을 손에 쥐고 사는 건 천운을 타고 난거다. 무탈하지 않은 사회다. 하루가 멀다하고 의문투성이인 사건·사고가 가득하고 불의의 사건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누군가의 삶은 송두리째 휘둘린다. 열심히 흔들리다 얻은 간절한 바람은 단 하나. ‘평범함’.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살아내는 게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는다.

별일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이들이 많아질 수록 그들을 다독여줄 이야기꾼들도 생겨난다. 미국의 캐스린 니콜라이 크리에이터는 수

많은 청취자들에게 달콤한 잠을 선사해온 인기 팟캐스트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Nothing Much Happens〉를 2018년부터 진행해왔다.

제목처럼 캐스린은 별일 없는 무탈한 하루를 들려준다. 집안에서 파곤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내리는 함박눈 구경하기, 여름날 숲속 바위 위에 누워 별이 가득한 밤하늘 바라보기, 약속이 취소된 저녁에 빗소리를 들으며 아껴둔 영화 보기. 별일 없지만 소박한 행복이 깃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루종일 다양한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느덧 안정을 찾고 깊은 잠에 빠진다.

이토록 잔잔한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읽을 차례다. 책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는 캐스린이 팟캐스트를 통해 들려줬던 이야기를 글로 담아냈다. 캐스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작가가 명명한 ‘별일 없는 동네’에서 보내는 일들인데 이 동네는 무릎에 올라앉은 반려동물의 온기를 느끼며 책을 읽는 다거나 하는 정도의 소소한 일들만 일어나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독자가 할 행동은 단 하나. 매일 밤 방의 조도와 온도 등 내 몸에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자리에 누운 뒤 책 목차 속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골라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치 내가 별일 없는 동네에 있는 듯 장면을 찬찬히 그려내면 된다.

자 이제 책을 펴 온전히 집중해보자.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빛깔이 차츰 변해가는 하늘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크리스마스의 소란함이 가라앉은 어느 연말, 나는 어느새 제일 좋아하는 상점 진열장 너머의 플래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상한다. 무탈한 일상이다.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훈훈한 아침공기, 흙 냄새, 이슬의 차가운 감촉, 모든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다. 여유롭고 기분 좋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며 삶을 좀 더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진다. 그렇게 위안을 얻는다. 352쪽, 1만7천원.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美 크리에이터 캐스린 니콜라이
팟캐스트로 들려준 소소한 일상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힐링' 선물



세헤라자드 사서의 별벌책

〈55〉책과 가까워져보자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술링크 지음·
김재혁 옮김/ 시공사 펴냄

“재판장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나는 정말 몰랐다. 그녀 자신이 어떻게 달리 행동해야 했는지,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한나는 글을 몰랐고, 사유의 깊이가 얕았고, 그러므로 그녀의 상황판단 능력은 부족했기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책 읽어주는 남자’는 성과 사랑, 문맹으로 인한 삶의 에너지 상실, 무지한 행동의 비극적 결과, 전후 독일의 시대사, 개인의 자유와 품위,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문제 등 굵직하고 묵직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지적 사고에 대한 전투력을 높이는 주제들로 인해 독서토론 추천 도서로 단골인 이 책을 ‘책 읽기’를 말함에 있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그 때문에 운전자 교육을 받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전자회사에서 도망쳤고, 그 때문에 지멘스에서 승진하는 일도 마다하고 강제수용소 감시원이 돼 수감자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

전후 독일 시대사 속 철학적 문제 담고 있어
다양하고 묵직한 주제…독서토론 추천 도서

다. 한나는 술한 삶의 결정 앞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류에 순응하는 삶을 택함으로써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범 죄자가 됐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하여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사유의 첫 단계는 ‘읽기’고, 이어 의문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한나는 재판장에서야 비로소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내가… 지멘스에 취직하지

책 CHECK

좋은 날 하자

나태주 지음/ 샘터 펴냄



등단 52년의 나태주 시인이 50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빚어낸 신작 시 204편이 담겼다.

팔순의 문턱에 다다른 시인은 이번 책에서 더 욕심을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자신의 시 세계를 정리하며 공고히 한다.

‘괜찮아 서툴러도 괜찮아/ 서툰 것이 인생이란다/ 조금 좀 틀려도 괜찮아/ 조금씩 틀리는 것이 인생이란다/ 어찌 우리가 모든 걸/ 미리 알고 세상에 왔겠니!’(괜찮아 중)

언제나 그랬듯 그의 시에는 더없이 깊고 순수한 사랑과 파스한 위로가 담겨 있다. 특유의 다정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어는 힘겨운 삶에 지친 마음을 몽글몽글 포근하게 만들어준다.

일러스트레이터 오오유 작가가 시를 읽고 표현한 일러스트 6컷이 실렸으며, 각 그림 뒷면에는 나태주 시인이 그림을 감상하고 직접 손글씨로 적은 시가 인쇄돼 있다. 320쪽, 1만8천원.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스탈린의 전쟁

제프리 로버츠 지음김남섭 옮김/
열린책들 펴냄

대량 학살을 저지른 사악한 독재자 이 미지로 그려진 스탈린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 나왔다. 다소 도발적인 재평가다. 책의 저자 제프리 로버츠는 스탈린의 잔혹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훌륭한 군사 지도자이자 자본주의 세계와의 평화적 공존을 꾀한 노련한 외교관으로 분석한다. 인류의 악인으로 낙인찍힌 히틀러와 달리 스탈린은 러시아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때로 되살아난다는 것.

‘스탈린의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에서 스탈린이 사망한 해인 1953년 냉전까지 다루고 있다. 격동의 시대에 스탈린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했는지 드러낸다. 스탈린이 냉전시대를 열었지만 냉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이러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분석을 통해 저자는 우리가 스탈린과 소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BBC는 책 추천사를 통해 스탈린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가 소련의 독재자에 대한 놀라운 방어라고 표현했다. 활발한 토론이 예고된 책이다. 744쪽, 4만5천원. 배주현 기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달걀 요리

쓰레즈레 하나코 지음, 가케히준 그림,
조수연 옮김/ 시그마북스 펴냄

단백질, 지방, 비타민A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치매 예방, 안구 건강,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완전 식품이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다이어터와 헬스인 등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달걀’이 그 주인공이다.

달걀은 이렇듯 건강에도 좋지만, 실제 맛도 좋아 인기가 많은 식품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자주 먹던 평범한 달걀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 간단한 달걀 요리인 프라이부터, 태국식 게살 달걀 커리 등 고급스러운 달걀 요리 레시피까지 다양하게 소개돼 있는 책이 출간됐기 때문이다. 책에는 무려 100가지 달걀 요리의 재료, 과정 등이 그림과 사진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돼있다.

달걀을 너무 사랑하지만, 매번 똑같은 달걀 요리는 질려버린 이들에게 안심맛춤이다. 132쪽, 1만5천원.

심현제 기자 gjswo0302@imaeil.com



김정남 경상북도교육청 청의인재과 사서

고전부터 현대까지, 예술가 32인 숨겨진 이야기



사연 있는 그림

이은화 지음/
상상출판 펌

사연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군가의 사연을 접한다.

사연을 듣는다는 건 타인과 타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생겨난 오해와 편견을 지워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떤 대상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에 얹힌 사연을 듣는 것이다.

사연없는 사람이 없듯, 모든 미술 작품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80%가 방문의 이유로 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언제부터, 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걸까. 보기만해도 심란해지는 몽크의 ‘절규’는 어떻게 작가의 대표작이 되었으며, 무엇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화가 니키 드 생팔은 왜 붓이 아닌 총을 들고 그림을 그렸을까. 뒤샹의 변기는 어떻게 현대미술의 신화가 됐을까.

미술가, 평론가, 칼럼니스트, 독립 큐레이터, 교육자 등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엄 스토리텔러’ 이은화 씨가 직접 조우했던 작품과 그 작가들에 대한 사연을 소개한다.

반 고흐,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잘 알려진 화가들을 비롯해 걷는 것으로 조각을 만드는 리처드 롱, 꽃가루나 돌처럼 자연에서 얻은 유기적 재료로 작업하는 볼프강 라이프 등 조금 낯선 이름의 현대미술가들도 등장한다.

화가의 생애뿐만 아니라 명작의 가치, 부자들의 소유 욕망에서 비롯된 그림 가격에 관한 얘기도 흥미롭다. 1990년, 경제 사상 최고가 그림이었던 고흐가 그린 초상화를 낙찰 받자마자 자신이 죽을 때 함께 화장해달라고 했던 어느 일본기업 회장의 기막힌 유언 등이 그것이다.

언젠가 떠날 여유가 생긴다면 직접 그림 앞에 서보고싶다고 느낄 독자들을 위

해 지은이는 친절하게 스페셜 페이지를 마련했다. 책 속에 나온 그림을 볼 수 있거나 해당 작가의 작품을 다수 소장한 미술관들을 소개했다. 루브르 박물관부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내셔널갤러리 오브 아트, 드 폰트 현대 미술관까지 23곳의 기본 정보와 그에 얹힌 사연 또한 디지털트 같은 즐거움을 준다.

책에 소개된 32인의 예술가는 지독한

‘뮤지엄 스토리텔러’ 지은이 화가 대표작 통해 사연 소개
혹한 시련 꺾이지 않는 의지
삶의 영감 용기 얻을 수 있어

가난과 사회적 차별, 끔찍한 성범죄,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나아갔다.

일상의 밝고 행복한 순간들을 화폭에 담은 르누아르는 그림과 반대로 생활하고 전쟁을 겪고 비평가들의 조롱까지 받았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프랑스 파리 오랑주리미술관에 전시돼있는 모네의 작품.

매일신문 DB

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는 말을 남겼다.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치열

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성취를 이룬 예술가들의 사연은 단순한 사연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영감과 용기를 준다. 그

들의 사연에 공감하다보면 어느새 미술과도 친해져있을 것이다. 296쪽, 1만7천500원.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조선시대 벽을 뛰어넘은 10대들

조선시대 흙수저 청소년들 이야기다. 책 제목과 한줄 설명만 봐도 솔깃하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청소년들도 현재를 사는 청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가정이 어려워 사랑도 꿈도 못 꾸다면? 괴이하다 못해 불쾌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명문가 집안의 내 놓기 부끄러운 자식이라면? 조선에 살았던 작품 속 청소년 조 도령, 석계, 안국의 고민이다. 시대만 달랐지 21세기 청소년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테다.

금수저, 흙수저..., 조선시대도 수저

계급론이 있었나보다. 책에 담긴 이야기 배경에는 조선 중후기 새롭게 등장한 부(富)로 인한 신분 변화 등 사회 규범과 모순이 깔려있다. 그림에도 조선시대 청소년들은 신분의 벽, 성차별의 벽을 당차게 깨부수고 뛰어넘는다. 노비였던 청소년 ‘정기룡’은 성인이 돼 용맹한 장군으로 거듭나는데 시대에 굴복하지 않은 당찬 태도에 통쾌하기까지 하다.

단 이야기는 모두 각색 소설이다. 김중광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여느 청소년문학과 달리 관점을 비틀었다. 흔히 옛이야기를 당대 청소년에게 전할 때,



조선 청소년 이야기

김중광 지음/
교유서가 펴냄

어른들은 교훈을 줘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독자가 아니라 계몽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어른의 시각을 통해 청소년에게 말하는 억지스러운 교훈을 다 뺐다.

그보다는 조선시대 청소년들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사실적으로 풀어낸 인물의 사람다움을 나타내는데 집중했다. 그러니 당연히 교훈은 부족할테다. ‘교훈

은 강아지에게나 갖다줘’라는 마음으로 글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대신 김 작가는 시대에 도전하는 조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했다.

다른 시대에 살지만 현대 청소년과 같은 고민, 같은 꿈을 꾸는 10대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아이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교육용으로도 훌륭한 책이다. 사실적으로 그린 조선시대 사회 모습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토론해보고 국가란 무엇인지, 사회는 어떠한지 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해봐도 좋겠다. 261쪽, 1만5천원.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내가 읽은 책

영화, 도시를 캐스팅하다 (백정우/ 한티재/ 2019)

시대의 거울

영화 탄생의 배경에는 산업화와 도시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영화 평론가인 백정우 저자는 “영화가 주는 감흥과 충격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일,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표명했다.

“사회생태학 개척자 메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을 1차 자연(first nature), 도시 마을과 같이 인간화된 혹은 사회화된 자연을 2차 자연(second nature)이라 불렀다.” 시대의 공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시만큼 적절한 재료는 없다고 했다.

프롤로그를 따라가는 도시(제천, 함평, 인천, 군산, 영월, 삼척, 옥천, 파주, 춘천, 울산, 소성리, 거제, 부산, 대구)는 한국영화가 사랑한 도시, 도시가 만난 영화이다. 도시는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며 영화는 도시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낸다. 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공간은 사람을 규정하고 사회적 위치를 대변한다.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인식과 대접이 바뀐다. 정재는 감독의 데뷔작 <고양이를 부탁해>는 변두리의 질박함을 부탁하는 인천에서 꿈과 희망과 낭만으로 채색된 청춘의 판타지와 토사물처럼 어그러진 현실을 보여준다. 부패는 발효를 말하는 것이리라.

영화는 곧잘 소박한 민심과 자연이 품겨내는 위대한 힘을 캐스팅하며 한축을 맡겨버리곤 한다. 자신을 꼭 닮은 허물을 벗어두고 퍼드덕 날아오르는 매미의 첫 울음처럼, 변두리의 삶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변두리

정화십

영화는 보여준다. 이러한 변두리의 영화적 힘은 겸허한 진정성에서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느냐고 묻지 말자. 사랑의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계절이 오듯, 사랑도 그렇게 간다는 것. 봄날이 가고 겨울이 오면 또 다른 사랑이 울지도 모를 일이다.”(57쪽) 삼척의 술한 명소를 마다하고 대숲과 해수욕장에 카메라를 들이댄 까닭이다.

도시마다 숨 쉬고 있는 영화들은 시대와 공간을 수렴한다. 가난의 곡선에 애잔하게 곱들거리는 무언의 그리움, 아름다움은 늘 비애와 함께한다. 바람이 낙엽을 물고 다니는 계절이다. 여름의 팽팽했던 푸름은 몸속에 숨겨두고 책 속의 도시들을 건너도 좋으리라. 도시가 캐스팅한 영화 속에는 잿빛의 얼룩과 제 빛깔을 닮은 하늘이 맞물려 있다.

정화십 학이사독서아카데미 회원

‘능동적’ 진짜 ‘재미’를 찾아라!

“어제 저녁 식사 자리는 어땠어, 재밌었어?” “음...뭐... 그냥 재밌었어.”

혹시 우리가 ‘재미’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 있는가? 우리는 위와 같은 대화에서 그냥 뚱뚱그러서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지은이는 우리의 이런 말 습관이 ‘재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또 재미에는 능동적인 재미와 수동적인 재미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행동을 능동적

인 재미, TV 혹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즐기는 것을 수동적인 재미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재미의 에너지 수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력하게 제언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진짜’, ‘능동적인’ 재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재미가 가지는 가치, 재미를 찾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책의 장점은 단순히 ‘그렇다더라~’식의 작가 개인의 가치관만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실제 연구와 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바탕이 돼 신뢰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파워 오브 편

캐서린 프라이스 지음, 박선영 옮김/
한국경제신문 펴냄

이를 태면, 지은이는 인간이 언제 ‘진정한 재미’를 느끼는지 연구하기 위해 나이,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인종 등이 모두 천차만별인 사람 1천5백 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이들을 ‘편 스쿼드’(Fun Squad)라고 명명하고, 그들이 ‘진정 재밌었다’라고 표현한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했다. 바로 >장난기 >유대감 >몰입이다.

정점 지난 강대국 함정에 빠졌다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미중 대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패권국인 미국이 신흥 강국인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미국 입장에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힘겨루기와 그 결과는 정말 중요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눈길을 확 끌어당겼다.

이 책은 기존 미중 대립을 다룬 책과

는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 중국의 부상과 패권 도전의 야심을 강조한 기존 책과는 다른 전망과 처방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미중 대립을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중 대립은 짧게는 몇 십 년, 길게는 한 세기를 바라보는 기존 책과 달리 이 책은 미중 대립이 10년간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에는 중국이 2020년까지 미국과의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줄였지만, 이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쇠락하면서 ‘조루현상’을 생각보다 훨씬 빨리 겪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이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를리, 할 브랜즈 지음/ 김중수 옮김/ 부키 펴냄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암울한 미래를 타개할 탈출구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2030년 이전에 대만 침공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은이들은 현 중국을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1941년 태

평양전쟁을 시작한 일본과 같이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이같은 미중 대립의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긴급하고도 치밀한 대(對)중국 봉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이나 분석은 기존 책들과는 사뭇 다르지만, 마냥 허투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공동 집필한 마이클 베를리와 할 브랜즈는 학자인 동시에 현재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국가안보 기관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전략가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416쪽, 2만원.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베스트 셀러

2월 첫째 주

순위	책명	저자	출판사
1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메이븐
2	원생	게리 켈러	비즈니스북스
3	생애 감사해	김혜자	수오서재
4	불편한 편의점 2	김호연	나무옆의자
5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	미래의창
6	미스터 프리저던트	탁현민	메디치미디어
7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모모
8	불편한 편의점 2	김호연	나무옆의자
9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10	역행자	자칭	웅진지식하우스

※ 교보문고 제공

생산지 직송 파격할인 이벤트



맛이 깊은 100% 국내산 재첩진국

신선한 국내산 활재첩만을 엄선하였습니다.

국내산 원조 하동 재첩진국

식물안전관리인증 HACCP

자연산 재첩진국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 ▶ 아침 저녁 국거리가 걱정하신분
- ▶ 입맛이 없으신분
- ▶ 해장이 필요하신분
- ▶ 속이 불편하신분
- ▶ 개운한 국물이 생각나시는분

600g 기타 수산물가공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11,600원 할인

1세트 (10봉, 20인분) **69,800원 (6kg)**

2세트 (20봉, 40인분) **128,000원 (12kg)**

제품구입상담전화 1899-3570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약도라지 속 사포닌만 24가지

사포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 풍부하게 함유

강원도 약도라지 진액고

증, 청 모두 아닙니다. 아무것도 넣지않고 100% 강원도 약도라지 초 고농축 100% 진액

1세트 198,000원 -> 138,100원 할인

총 4병 **59,900원**

무이자 3개월 / 한달 19,966원 (100g x 4병)

2세트 추가 20,000원 할인

총 8병 **99,800원**

무이자 3개월 / 한달 33,266원 (100g x 8병)

제품구입상담전화 1899-3570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숨쉬기가 힘들어요?

"강원도 약도라지 진액고 드세요"

-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 고령화와 비흡연에 노출된 아이와 여성분!
- * 황사, 미세먼지, 배기가스에 시달리는 분
- * 초미세 분진이 많은 학교 급식실, 또는 식당
- *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염려되는 주부!
- * 선생님 등 목을 많이 쓰시는 분
- * 공기가 탁한 실내, 공장, 근무자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정내 상비용으로 추천합니다.

SEN 서울경제TV 홈쇼핑 방영중!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NH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NH농협손해보험

100%국내산흑염소와 국내산 고급재료 19종을 함께 48시간 동안 추출하여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국내산 흑염소 지리산마천농협

흑염소

흑염소의 영양분과 좋은 재료로 정성되어 만든 "흑염소 진생"

2개월분 **69,800원**

4개월분 **128,000원**

제품구입상담전화 1899-3570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의 힘! 느껴보세요

흑마늘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마늘.. 가정에서 만들어 먹자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은 첨가물 없이 오로지 순수한 국내산 마늘로 만들었습니다. 발효를 거치면서 맛이 더 깊어져 어린이부터 중, 장년 어르신들까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의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1억원 제조물 책임보험

마늘 관련 언론보도

- 2002년 8월 'KBS 9시 뉴스' 우리토종 마늘 수입산 56배 효과
- 2003년 5월 'KBS 생초병사의 비밀' 마늘의 유용성 심층보도
- 2006년 8월 'KBS 뉴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웰빙으로 건강백세
- 2007년 8월 'SBS 모닝와이드' 건강 100세의 비밀 한국산 흑 마늘이 책임진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

1세트 (300g x 4통) **파격가: 99,800원**

2세트 (300g x 8통) **파격가: 189,800원**

제품구입상담전화 1899-3570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지리산마천농협 흑염소 진생

2개월분 [2박스 (60포)] **69,800원**

4개월분 [4박스 (120포)] **128,000원**

국산 흑염소의 육질이 통째로 들어가 청정지역의 깨끗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품으로 1일 1회 식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국내산 흑염소와 함께 좋은 재료들을 배합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진하고 담백하며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시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걸러냈고 국내산 한약재를 배합하였기 때문에 흑염소 특유의 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끝 맛이 깔끔하게 특성입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에서 엄선된 재료와 투신한 국내산 흑염소로 정성껏 진생을 다 하여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Black Goat Jin Saeng 흑염소 추출액 81%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계명대 일자리센터 “진로·취업 가교 역할 충실히 수행”

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7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학에 선정
졸업생·지역 청년들 포괄적 지원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평가에서 7년 연속(대학일자리센터 6년 포함) 우수(최고 등급)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개편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계명대가 지역 취준생을 위해 마련한 멘토데이와 대학리크루트 투어 행사.

계명대 제공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시범 대학

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 거점 센터로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체 및 대학과 청년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명대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로·취업 상담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기업체 및 졸업 동문 현장 중심 멘토링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거버넌스 기반 취업 박람회 및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성용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계명대는 진로·취업 분야에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 취업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태진 기자 novel@maeil.com



농협 영양군지부 ‘공명선거 결의대회’

농협 영양군지부(지부장 서종식)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일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경찰서와 함께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대구가톨릭대-K뷰티인협회 뷰티 전문 인력 양성 협약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상한기)는 지난달 31일 (사)K뷰티인협회(이사장 추교익)와 뷰티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통공사 11년 연속 청렴도 ‘우수 등급’

DTRO 청렴밴드 신설 등 호평

대구교통공사(DTRO·사장 김기혁)는 15개 유형 전국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 공직 유관단체 195곳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1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은 행정기관을 포함해도 5개 기관만이 달성한 희소한 성과다. 대구교통공사는 올해 지방공사·공단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없는 만큼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청렴도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자평했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로 개편되었으며, 공공기관과 업무 경합이 있는 업체 및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공사는 지난해 사규 제정 등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기반을 구축했고, 청렴 옴부즈맨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비위자 인사 패널티 강화, 고위직 청렴 실천 지침 마련 및 자



대구교통공사가 4일 김기혁(가운데) 사장 취임·출범식을 가졌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재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임직원 반부패 노력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부패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렴 정보 공유를 위한 DTRO 청렴밴드 신설,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용, 민관 협력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11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시민들이 함께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신규 시책 발굴과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구교통공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1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 구호 문구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제공

“안전·청렴 경영 원칙…도민 행복 지키기 최선”

경북개발공사 결의대회 개최
건설현장 관계자 50여명 참석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1일 공사 강당에서 임직원과 건설현장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하고 청렴한 건설 문화가 정착하는 데 경북개발공사가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행사는 안전·청렴 경영 메시지 전달과 안전결의 서약식, 안전결의문 낭

독, 갑질 근절 캠페인 등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자’라고 적힌 안전결의문에 공동 서명하고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을 경영의 제1 원칙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직원과 건설 참여자 모두 무재해 기록 달성, 부패 제로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solive@maeil.com



동우씨엠은 2일 대구 동우센터빌딩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동우씨엠 제공

동우씨엠 창립 24주년 ‘동우인’ 이재경·박영애 씨

경영 트렌드 제시·도약 다짐

종합 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대표 이사 회장 조만현)이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열고 차별화된 경영으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동우씨엠은 2일 대구 동우센터빌딩 스타홀에서 각 계열사 사장단과 고객사, 대외협력처가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FM사업본부 이재경 기술지원센터장과 동우사회봉사단장인 박영애 관리사무소장(이안경산전량)이 ‘자랑스러운 동우인’으로 선정됐다.

1999년 2월 창립한 동우씨엠은 현재 임직원 3천50여 명, 전국 310여 곳의 위탁관리현장을 맡고 정교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연매출은 1천250억원, 올해는 1천680억원에 매출 목표로 정했다.

이날 동우씨엠은 올해 ‘경영 트렌드’인 ‘Let’s ESGO’도 소개했다.

ESGO는 ▷E(Expand): 성장 전략과 지속 경영 ▷S(Space): 디지털 공간간 경영 ▷G(Generational Harmony): 세대 화합과 미래 경영 ▷O(Open minded): 함께하는 열린 경영 등을 뜻하는 말이다.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은 “오늘 발표한 2023년 경영 트렌드의 의미처럼 임직원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역량과 마음가짐을 갖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aeil.com



동국대 한의과대학 봉사단 청송서 무료 진료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진료 봉사단 동현회

(단장 최한결) 회원 40여 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송군(군수 윤경희) 부남면 남관생활문화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를 시행했다.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성금 기탁

경북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현숙)는

지난달 31일 군위군청에서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회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소속 15개 단체가 군에 교육발전기금 23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경북중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 ‘가족 연수회’ 실시

경북중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회장 노순

광)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22 경북중등체육교과교육연구회 연수회’를 진행했다. 연수회에는 교사들과 가족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경북 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달 31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한두 남성연합회장, 박영애 여성연합회장이 임명장을 받고 새롭게 의용소방대를 이끌게 됐다.

경운대 ‘CIS·중양아시아’ 국제협력 본격화

타슈켄트국립의대 산학협력

경운대학교가 해외 인재 활용을 위해 CIS(독립국가연합·구 소련공화국 연합체 국제기구) 국가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운대는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대와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상호협력서를 체결하고 타슈켄트에 산학협력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운대는 타슈켄트국립의대와 보건계열 인력 양성 및 2+2교육에 적극 나서는 한편, 현지 산학협력센터를 통해 기업 진출, 현지 기업과의 산학 교류, 재학생들의 글로벌 교육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운대는 타슈켄트주 누랍산시 셸리우 시장을 만나 지역 개발 프로젝트 공동 진행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경운대는 15년여 전부터 개발도상국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베트남·필리핀·몽골 등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산학협력센터를 개설하고 현지 학생 산학협력 교육, 기업 지원, 현지 진출 기업



문추연(오른쪽) 경운대 부총장과 타슈켄트국립의대 사드마노프 총장이 협약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운대 제공

지원 등 활동을 펴오고 있다.

또 베트남·아제르바이잔·키르기스스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설립해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정치 교육을 활발히 펴왔다.

문추연 경운대 부총장(대학혁신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한국 진출 수요가 많은 독립국가연합을 대상으로 지역 지원 거점대학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아를 지역 공동체로 생각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lch888@maeil.com

이정원 노무사 안동고에 장학금 3학년 진급 132명 5만원씩 전달



이정원 법무법인 민(民) 고문 겸 공인노무사(24회 졸업생)는 1일 모교인 안동고를 방문해 3학년 진급 예정인 132명 전원에게 5만원씩 총 6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4년 동안 총 2천625만원의 장학금을 안동고 후배들에게 지원한 바 있는 이 고문은 “작지만 후배들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 lhssk1@maeil.com

인물 수첩

이규현 성주군체육회장



이규현(57) 신임 성주군체육회 회장은 1일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체육인의 스포츠 정신으로 성주체육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다양한

한 체육 종목 활성화와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주군체육회는 수영협회를 정회원 단체로 승인해, 파크골프·축구·배구 등 2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구미시설공단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이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미시설공단은 전국 지방공기업 38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91점 고득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채동익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고객들이 직접 평가한 조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더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maeil.com

성주군 ‘경상북도 우수·미색 축제’ 2개 부문 선정

‘성주참외 & 생명문화’ 2년째 우수 ‘메뚜기축제’ 친환경 농촌 체험 호평 “군·경북 관광 발전 촉매제 될 것”

경북 성주군은 ‘2023 성주참외 & 생명문화 축제’와 ‘2023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각각 경상북도 우수 축제와 미색(微色) 축제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3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망 축제로 선정됐으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7천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축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성밖숲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미색(微色) 축제에 선정돼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축제는 주민주도형 친환경 농촌체험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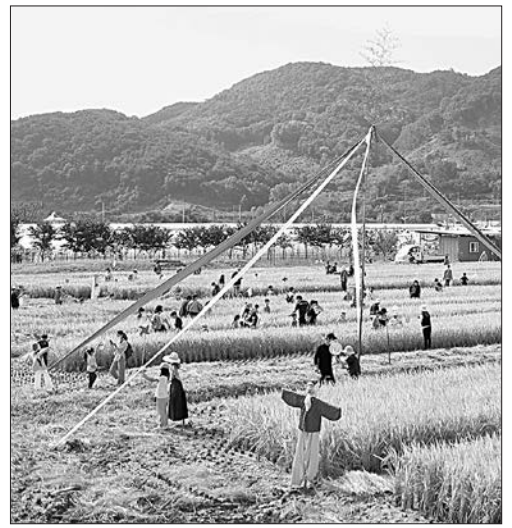


경북 대표 축제 우수 축제 부문에 선정된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

성주군 제공

로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직접 꾸려나가는 점, 참신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쉽게 유입할 수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2023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와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주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이라며 “올



경북 대표 축제 미색 축제 부문에 선정된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해 축제도 참신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군과 경북 관광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인사

◆대구시교육청

◇유·초·특수 <교감(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원장) 승진>▷비슬유 권건희 ▷포산유 박경화 ▷자연누리유 신성희 ▷옥빛유 안영희 ▷칠곡초 구본주 ▷동촌초 김경애 ▷신당초 김진미 ▷중리초 김영희 ▷구기초 김태영 ▷동평초 김혜경 ▷울하초 신경보 ▷북비산초 이명호 ▷북현초 이양희 ▷신흥초 이현숙 ▷남산초 장윤옥 ▷북동초 정승수 ▷도남초 정은희 ▷대전초 최금귀 ▷포산초 최학섭 ▷성산초 백경숙 ▷효곡초 엄기웅 ▷이곡초 이진희 ▷삼덕초 전병완 ▷중앙초 최성렬 <교장(원장) 중임>▷새문유 장봉희 ▷조암초 김계현 ▷영선초 김명옥 ▷사월초 김성애 ▷장동초 김추자 ▷도원초 김형태 ▷동원초 마예란 ▷신암초 박일홍 ▷옥수초 성지명 ▷국우초 이교화 ▷매호초 정하윤 ▷신성초 조태순 ▷반송초 황영숙 <교장(원장) 전보>▷신천가은유 채정화 ▷매동초 권보경 ▷본리초 김세환 ▷청림초 김승옥 ▷지봉초 김경희 ▷용계초 김주정 ▷두산초 박숙희 ▷대현초 신명숙 ▷동성초 이옥희 ▷성북초 장세철 ▷울금초 지승옥 ▷대

덕초 최송이 ▷장기초 황덕근 ▷고산초 황재수 ▷경북대학교사범대부설초 이운발 <원장에서 교육연구관>▷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경희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성동초 김한룡 ▷동도초 이철구 ▷용전초 정병우 ▷현풍초 류은영 ▷동변초 조수경 <교장 초빙>▷진월초 이미숙 ▷지묘초 최영란 <교사에서 교감(원감) 승진>▷자연누리유 김자림 ▷황금유 신은경 ▷서변유 홍승임 ▷세천유 김지영 ▷공산초 권위순 ▷신흥초 김문정 ▷비슬초 김영선 ▷방촌초 김영숙 ▷해서초 김현숙 ▷월암초 문은희 ▷장동초 박경연 ▷송정초 박남주 ▷서대구초 박재우 ▷고산초 박정애 ▷동전초 박종수 ▷교동초 박태현 ▷죽전초 배정희 ▷선원초 부미경 ▷대청초 윤주연 ▷남도초 정선진 ▷삼영초 정영희 ▷구기초 하귀녀 ▷칠곡초 황은자 <교감(원감) 전보>▷비슬유 나미영 ▷학정초 송명희 ▷새문초 김만도 ▷동대구초 김은정 ▷동호초 김태우 ▷청림초 김훈섭 ▷신천초 도종윤 ▷덕성초 박병주 ▷새문초 변부경 ▷수성초 송의연 ▷파동초 유은옥 ▷지봉초 이일숙 ▷사월초 이종식 ▷동산초 정경숙 ▷신성초 정영옥 ▷노변초 조정숙 ▷용계초 지명주 ▷남산초 나익록 ▷문성초 김문규

▷서변초 조아분교장 배영희 ▷북부초 이주형 ▷상인초 김금연 ▷상원초 김재옥 ▷파호초 김찬수 ▷성서초 문명상 ▷효명초 박기명 ▷대남초 박남순 ▷월배초 배영직 ▷월곡초 이상숙 ▷도원초 정재봉 ▷성산초 차영환 ▷매곡초 김진수 ▷왕선초 신윤섭 ▷옥포초 오연재 ▷용계초 한미영 ▷대구교육대학교부설초 권민석 ▷세명학교 진해영 ◇중등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 승진>▷달성초 김호옥 ▷수성고 석창원 ▷상인고 이응곤 ▷운암고 유경아 ▷호산고 김미숙 ▷동원중 모갑중 ▷신아중 조경숙 ▷강동중 김진현 ▷관음중 송선화 ▷동평중 김춘석 ▷대구중 이경희 ▷성당중 박계향 ▷성지중 김이환 ▷용산중 이화정 ▷월서중 김봉석 ▷조암중 차운식 ▷경혜여중 박용수 ▷서재중 김찬곤 <교장 중임>▷동촌중 고영오 ▷매호중 김상도 ▷새문리중 백성기 <교장 전보>▷경북여고 김차진 ▷범물중 장경희 ▷시지중 이삼식 ▷덕화중 강애남 ▷도원중 이정혜 <교장 공모>▷대구과학고 이용호 ▷농림마이스터고 서영석 ▷임마이스터고 김경일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장>▷시지고 이상복 ▷대구고교 이혜정 ▷해학중 이창호 ▷와룡중 박일환 ▷성곡중 박창석 ▷월암중 김석기

<교사에서 교감 승진>▷다사고 오승재 ▷상인고 이후현 ▷화원고 조한진 ▷학남고 김미영 ▷대구공고 이현복 ▷수성중 신미경 ▷신아중 이미영 ▷신기중 박은지 ▷고산중 김경희 ▷황금중 서경희 ▷평리중 이영은 ▷칠곡중 김동임 ▷운암중 김영철 ▷성서중 김혜진 ▷도원중 백재영 ▷성지중 김인복 ▷용산중 김경태 ▷상원중 류상락 ▷구기중 최은희 ▷노공중 송정민 ▷화원중 김선희 ▷북동중 이경숙 ▷유가중 유성현 <교감 전보>▷상원고 이현정 ▷칠성고 최재영 ▷경북여고 남시일 ▷대구공고테크노폴리스캠퍼스 황인석 ▷임성중 김은주 ▷동부중 광림소 ▷동원중 이경희 ▷범물중 김선영 ▷침산중 김숙향 ▷팔달중 서혜란 ▷서남중 이미현 ▷신당중 이현우 ▷조암중 백찬 ◇교육전문직 <시교육청 과장에서 교육장 승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형 <교육지원청 국장에서 교육장 승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삼선 <시교육청 과장에서 원장 승진>▷교육연구수원 원장 안영자 <교육연구관에서 교육장 승진>▷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관 <교육연구관에서 교육연구관(급수) 승진>▷교육연구수원 장학관 <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관 승진>▷미래교육연구원 서해경

오늘의 운세 2월 4일(음력 1월 14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36년생 사람들에게 편견을 듣고 싶지 않다면 주변의 일에 끼여들 어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48년생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지만 일은 무리 없이 진행되니 안심해도 되는 날입니다. ▶60년생 재물이 좋으니 투자나 매매 등을 고려해 봐도 좋은 날입니다. ▶72년생 새로 추진하는 일에는 방해가 따를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일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84년생 그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37년생 당신의 코가 석 자이니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49년생 가까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기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오늘은 주변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니 흐름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73년생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85년생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약속을 섣불리 믿지 않도록 하세요.	▶38년생 주위 사람들과 화합하고 싶다면 자기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말아요. ▶50년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스트레스받지 말고 다른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세요. ▶62년생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4년생 앞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면 정제되었던 기운이 몰라가고 좋은 기운이 상승합니다. ▶86년생 만년에 좋은 기운이 흐르니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39년생 몸에 탈이 나길 원치 않는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몸에 휴식을 주어야 해요. ▶51년생 재물은 돈다소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건강은 상승세이니 하루입니다. ▶63년생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운도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최소화하고 상대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87년생 옆에서 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던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40년생 오늘은 건강에 차도를 보이는 날이니 더욱 신경 쓰면 좋은 날입니다. ▶52년생 오랜만에 가정애 평화가 찾아오니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일의 진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76년생 오늘은 금전운이 대폭 상승하니 의외의 곳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88년생 주위를 잘 둘러보면 나와 잘 맞는 인연을 찾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41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인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53년생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컨디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66년생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난 힘을 키워야 하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사소한 문제를 막기 위해선 먼저 문제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차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90년생 내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면 내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42년생 마음을 편안히 갖고 안정을 취하는 날로 보내기 제격인 날입니다. ▶54년생 마음속으로 정적이 놓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 기분 전환하기 좋은 날입니다. ▶66년생 손해를 입거나 신의를 잃고 싶지 않다면 하는 일이 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91년생 내게 일관성있는 상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일 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43년생 정신이 깜박깜박하니 중요한 일을 잊어버려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55년생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나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보세요. ▶67년생 손해를 입거나 신의를 잃고 싶지 않다면 하는 일이 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91년생 내게 일관성있는 상대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일 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44년생 건강이 작신호를 보내며 몸이 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56년생 변화 없고 되풀이되는 일상에 지쳐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68년생 주변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 성과 또한 저조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계획되지 않은 소비는 꼼꼼히 체크해 보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날입니다. ▶92년생 쓴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선부터 시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45년생 오늘은 주변에 대가 없는 선물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57년생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69년생 건강의 기운은 다소 약하지만 금전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날입니다. ▶81년생 연인이나 배우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좋은 날이니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고 고백을 해도 괜찮은 날입니다.	▶46년생 내 주장을 굽히고 주변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가면 마음이 편한 날입니다. ▶58년생 지금 진행 중인 일의 지속 여부에 냉철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70년생 사업을 확장시킬 기회가 오고 작기에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운세입니다. ▶82년생 참고 사는 것만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는 날입니다. ▶94년생 연애운이 좋으니 우연한 장소에서 운명적인 만남과 마주칠 수 있는 날입니다.	▶47년생 나의 기본이 상충되고 에너지 또한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는 날입니다. ▶59년생 큰일에만 신경을 쓰고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71년생 계획한 일을 곧바로 실행하기보다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날입니다. ▶83년생 혼자만 하는 세상이 아님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기 좋은 날입니다. ▶95년생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이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는 게 좋겠습니다.

2월 5일(음력 1월 15일)

▶36년생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모든 일에 있어 감정을 넣어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48년생 건강이 좋으니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60년생 기쁨이 가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가면 기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72년생 가만히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좋은 날입니다. ▶84년생 인간관계 운이 나쁘지 않은 날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좋습니다.

▶37년생 하던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생각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49년생 재물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과한 욕심이 생겨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급한 성질을 죽이고 현기 어린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행운의 양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85년생 겉모습만 보고 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실체는 별 것 없을 테니 당당하게 행동해 보길 바랍니다.

▶38년생 지금의 재물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0년생 오늘은 일보다는 취미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62년생 돈을 밖으로 굴리면 굴릴수록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는 날입니다. ▶74년생 흡수를 쓰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삼가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쳐 나가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86년생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할 때 당신의 매력에 발산될 수 있습니다.

▶39년생 무엇이든 적당히 욕심을 내고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하루입니다. ▶51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 계속 해오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63년생 금전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5년생 재물운이 상승 곡선을 그리니 투자나 재테크를 진행해 봐도 좋은 하루입니다. ▶87년생 일이나 공부,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니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40년생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믿는대거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네요. ▶52년생 새가 취미로 즐기는 것을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64년생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하는 날입니다. ▶76년생 오늘은 사소한 문제로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88년생 상대방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의견을 교환해 보기 좋은 날입니다.

▶41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하고 있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의욕이 넘치는 날입니다. ▶65년생 남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습관을 가지면 나의 금전운도 절로 상승하게 됩니다. ▶77년생 평소 소원했던 사람과 대화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보기 적합한 날입니다. ▶89년생 누군가와 의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삼가도록 하세요.

▶42년생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덩서 구매해 놓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54년생 오늘은 어려운 일들을 주위에 부탁하여 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66년생 생 추진하고 있는 일이 약간 힘겹다고 느껴져도 조금 더 몰두해야 되는 날입니다. ▶78년생 시작은 순조롭게 풀리는 듯하나 시간이 지남에 점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0년생 자신을 컨트롤하고 적당히 조절하며 중심을 잡아야 하는 날입니다.

▶43년생 이때까지 쌓아온 나의 노후를 바쁘게 일로 처리하는 노련미를 보여 줄 날입니다. ▶55년생 너무 절제하고 자금을 갖고 있으니 주변에서 나를 구두쇠라고 칭하게 될 수 있어요. ▶67년생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생겨나니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79년생 기본이 생애 다른 장소에서 이성을 만나면 나에 대한 호감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4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56년생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나쁜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좋은 하루입니다. ▶68년생 심사가 뒤틀리니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주변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소소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행위를 줄이는 게 좋겠네요. ▶92년생 결 모습만 내면이 얼마나 짜고 실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5년생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57년생 수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니 병도 좋아지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69년생 그동안 당신을 옥죄어 오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1년생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소소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행위를 줄이는 게 좋겠네요. ▶93년생 결 모습만 내면이 얼마나 짜고 실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6년생 오늘의 운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59년생 친인척과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운입니다. ▶70년생 스스로의 힘으로 욕되어 오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2년생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사소한 말다툼에 주의해야 합니다. ▶94년생 지난날의 추억은 뒤로하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47년생 계속 지키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좋은 날입니다. ▶59년생 하던 일들이 자꾸만 지연되니 구성원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71년생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날입니다. ▶83년생 당신이 노력한 만큼 일에 성과가 나서 주변에서 크게 칭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95년생 솔라라만 오늘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구설에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영화를 보자 EBS1 '12 몽키즈' 4일 오후 9시 40분



EBS 1TV '12 몽키즈'가 4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영화는 바이러스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미래 인류가 시간 여행으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35년 바이러스 감염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자상에서의 생활을 포기한 채 지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과학자들은 감옥에 수감된 제임스 폴(브루스 윌리스 분)에게 시간을 거슬러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과거로 가서 현실을 바꾸는 미션을 제안하며 사면을 약속한다.

제임스는 시간을 거슬러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1996년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소수만

살아남은 미래의 인류가

현실을 바꾸려는 시간 여행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그는 곧 인류가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설득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병동에 수감되어 있는 제프리 고인즈(브래드 피트 분)의 도움으로 탈주하지만 다시 붙잡혀 감옥에 수감 도중 미

래로 돌아간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제프리가 12 몽키즈라는 단체의 주요 인물임을 알아내어 제임스는 다시 1996년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실수로 1910년대의 프랑스 전쟁터로 떨어져 위기를 맞게 된다.

운명과 순환에 대해 얘기하는 SF영화로서 시간 여행을 통해 필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으려 하지만 아슬아슬하고 피폐해진 미래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브래드 피트는 실제로 템플대학 정신병원에서 캐릭터를 연구해 당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신혜 기자 tvbox@maeil.com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
 40년 전통

053-241-3456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코이름** ▼

cpbc
 FM 93.1 MHz
 대구교통방송

오늘의 강론
 토 오전 6시 50분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TV 프로그램

4일 (토요일)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6:00 KBS 뉴스광장 7:50 남북의 창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KBS 네트워크특선 백두대령 11:20 팔도방송 12:00 KBS 뉴스 10 국악 한마당	5:00 TV쇼 진품명품(재) 6:00 박원숙의 같이 살다(재) 7:20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재) 8:5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10 영화가 좋다 11:20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2:5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0 테마여행 길 6:00 기본 좋은 날(재) 7:00 MBC 뉴스투데이 20 통일전망대 8:00 메가트론 매가 20 앙코르 오일장의 기억 9:20 예산추적프로젝트 30 TV메디컬 악소스 스페셜 11:20 열린TV 희망세상 55 MBC 뉴스 12:05 구해줘! 홈즈 스페셜	5:00 최강1교시(재) 6:00 모닝와이드 7:15 우주경찰 갤럭시 스쿼드 8:00 삼성 고향별곡 9:00 티마 스페셜(재) 10:00 TBC클라닉 건강 365 11:00 전국톱10 가요쇼 12:10 SBS 뉴스 20 미운 우리 새끼(재)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1) 30 EBS 비즈니스 리뷰 원데이 스쿨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EBS 초대석(재) 7:30 하프와 친구들(종합) 8:00 로보가 놀러(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반개망토의 비밀(재) 30 히어로 씨름 45 나눔 0700 10:15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1) 12:05 최고의 요리비결(종합) 2:20 특집 다큐 게임의 법칙 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4:00 글로벌 특선다큐 5:00 건축탐구 집(재) 5:4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재) 6:30 한국기행(종합) 8:00 인간과 바다(재) 50 극한직업 9:40 세계의 명화 <12 몽키즈> (테리 길리엄 감독, 브루스 윌리스, 브래드 피트 출연) 1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종합)
1:05 사람의 가족 2:00 중앙중앙 토크쇼 두 번째 이야기 15 구름구름 30 이웃집 찰스(재) 3:20 자연의 철학자들(재) 4:10 역사자널 그날(재) 5: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2:20 연중 플러스(재) 3:2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45 전국노래자랑(재)	1:55 금토드라마 <목두의 계절>(재) 3:15 쇼! 음악중심 4: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30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재) 4:00 SBS 뉴스 10 골 때리는 그녀들(재) 5: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1) 30 EBS 비즈니스 리뷰 원데이 스쿨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EBS 초대석(재) 7:30 하프와 친구들(종합) 8:00 로보가 놀러(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반개망토의 비밀(재) 30 히어로 씨름 45 나눔 0700 10:15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1) 12:05 최고의 요리비결(종합) 2:20 특집 다큐 게임의 법칙 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4:00 글로벌 특선다큐 5:00 건축탐구 집(재) 5:4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재) 6:30 한국기행(종합) 8:00 인간과 바다(재) 50 극한직업 9:40 세계의 명화 <12 몽키즈> (테리 길리엄 감독, 브루스 윌리스, 브래드 피트 출연) 1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종합)
6:00 동행 55 언녕 우리말(재) 7:00 KBS 뉴스 10 동네 한 바퀴 8:05 동물극장 단짝	6:10 불후의 명곡 8:0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8:35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40 금토드라마(목두의 계절)(재)	6:25 놀면 뭐하니? 7:55 MBC 뉴스데스크 8:35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40 금토드라마(목두의 계절)(재)	6: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8:00 SBS 8 뉴스 20 TBC 8 뉴스 35 금토드라마(법편)(재)	6: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1) 30 EBS 비즈니스 리뷰 원데이 스쿨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EBS 초대석(재) 7:30 하프와 친구들(종합) 8:00 로보가 놀러(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반개망토의 비밀(재) 30 히어로 씨름 45 나눔 0700 10:15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1) 12:05 최고의 요리비결(종합) 2:20 특집 다큐 게임의 법칙 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4:00 글로벌 특선다큐 5:00 건축탐구 집(재) 5:40 신계속의 맛따사이클 다이어리(재) 6:30 한국기행(종합) 8:00 인간과 바다(재) 50 극한직업 9:40 세계의 명화 <12 몽키즈> (테리 길리엄 감독, 브루스 윌리스, 브래드 피트 출연) 1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종합)
9:00 KBS 뉴스 9 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10:25 환경스페셜2 11:15 다큐 인사이트(재) 12:05 KBS 뉴스 15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재) 55 전산의 컬렉션 베스트(재) 1:15 KBS 뉴스 2: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9:25 살림하는 남자들 10:45 배틀트립2 12:1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9:50 금토드라마(목두의 계절) 11:10 전지적 참견 시점 12:55 금토드라마(목두의 계절)(재) 2:15 TV예술대 스페셜	10:00 금토드라마(법편) 11:10 그것이 알고싶다 12:25 손정파이더(재) 1:25 손정파이더 GoGo 2:20 전국톱10 가요쇼(재) 3:20 네트워크특선(재)	9: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2) 30 배움이 꽃피는 나무(재)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세상의 모든 법칙 스페셜 7:00 나눔 0700(재)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고고다아노 우리동네공룡(종합) 30 한글용사 아이아(종합) 10:00 자이언트 팽TV 스페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광광 30 극한직업(재)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마농의 샘 1> (클로드 베리 감독, 이브 몽탕, 제라르 드파르디의 출연) 3:40 일요필러 50 글로벌 특선다큐 4:4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5:35 세계테마기행(종합) 8: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9:45 명의제 10:40 한국영화특선 <빈정> (정기훈 감독, 고수, 한효주 출연)
1:30 일꾼의 탄생(재) 2:20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KB스타즈 4:20 팔도방송(재) 5: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3:2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45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	1: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50 일타강사 다이제스트 3:10 금토드라마 <목두의 계절>(재) 4:30 안수유연 다행이야 스페셜	1:10 월화드라마(트루리)(재) 3:30 SBS 뉴스 3:30 SBS 인기가요 4:50 집사부일체2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2) 30 배움이 꽃피는 나무(재)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세상의 모든 법칙 스페셜 7:00 나눔 0700(재)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고고다아노 우리동네공룡(종합) 30 한글용사 아이아(종합) 10:00 자이언트 팽TV 스페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광광 30 극한직업(재)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마농의 샘 1> (클로드 베리 감독, 이브 몽탕, 제라르 드파르디의 출연) 3:40 일요필러 50 글로벌 특선다큐 4:4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5:35 세계테마기행(종합) 8: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9:45 명의제 10:40 한국영화특선 <빈정> (정기훈 감독, 고수, 한효주 출연)
6:00 열린음악회 7:00 KBS 뉴스 10 이슈 픽 쌤과 함께 8: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15 1박 2일 8:05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8:30 스트레이트	6:05 복면가왕 7:55 MBC 뉴스데스크 8:30 스트레이트	6:20 런닝맨 8:00 SBS 8뉴스 30 TBC 8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금토드라마(법편)(재) 12:15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재) 1:45 네트워크특선
9:00 KBS 뉴스 9 40 역사자널 그날 10:30 예셀의 전당 11:20 환경스페셜2(재) 12:10 KBS 뉴스 20 시사 직격(재) 1:10 사람의 가족(재)	9:25 걸어서 환장 속으로 10:55 더 시즌즈 -박재범의 드라마인- 12:25 이별의 리콜이 되나요?(재) 1:45 KBS 재난방송센터(재)	9:10 물 건너온 아버지 10:45 구해줘! 홈즈 12:35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금토드라마(법편)(재) 12:15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재) 1:45 네트워크특선	

5일 (일요일)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KBS 네트워크특선 백두대령(재) 6:00 KBS 뉴스 10 한식의 마음 스페셜(재) 15 이웃집 찰스(재) 7:0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8:00 KBS 뉴스 10 일요진단 라이브 9:05 노래가 좋아 10:00 TV비행 시청자 데스크 11:00 TV쇼 진품명품 12:00 KBS 뉴스 10 전국노래자랑	5: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생생정보 스페셜 7:00 KBS 재난방송센터 10 영상앨범 산 4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8:40 존스하게 여기고 안 봐(재) 10:00 1박 2일(재) 11:20 배틀트립 2(재) 12:50 월화드라마(두뇌공조)(재)	5:00 푸른백색 여행가 바다야 6:00 포미든앨라(재) 7:00 MBC 뉴스 10 푸르거 식사교실(재) 40 대구MBC 시사특 8:35 이맛에 산다(재) 5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0:4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1:55 MBC 뉴스 12:05 출발! 비디오 여행	5:00 좋은 아침(재) 6:00 SBS 뉴스 10 물은 생명이다 7:10 일타강사 12 봄바 25 슈퍼다아노 40 네모세모(재) 8:30 문화로 채움 9:00 박경의 이슈 로드 30 TV동물농장 10:55 SBS 스포츠 불링 12:10 손정파이더(재)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2) 30 배움이 꽃피는 나무(재)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세상의 모든 법칙 스페셜 7:00 나눔 0700(재)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고고다아노 우리동네공룡(종합) 30 한글용사 아이아(종합) 10:00 자이언트 팽TV 스페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광광 30 극한직업(재)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마농의 샘 1> (클로드 베리 감독, 이브 몽탕, 제라르 드파르디의 출연) 3:40 일요필러 50 글로벌 특선다큐 4:4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5:35 세계테마기행(종합) 8: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9:45 명의제 10:40 한국영화특선 <빈정> (정기훈 감독, 고수, 한효주 출연)
1:30 일꾼의 탄생(재) 2:20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KB스타즈 4:20 팔도방송(재) 5: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3:20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재) 4:45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	1: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50 일타강사 다이제스트 3:10 금토드라마 <목두의 계절>(재) 4:30 안수유연 다행이야 스페셜	1:10 월화드라마(트루리)(재) 3:30 SBS 뉴스 3:30 SBS 인기가요 4:50 집사부일체2	5:00 EBS 비즈니스 리뷰(종합2) 30 배움이 꽃피는 나무(재) 6:00 한국의 돌래길(재) 40 세상의 모든 법칙 스페셜 7:00 나눔 0700(재)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당동맹 9:00 고고다아노 우리동네공룡(종합) 30 한글용사 아이아(종합) 10:00 자이언트 팽TV 스페셜 11:00 최고의 요리비결 광광 30 극한직업(재)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마농의 샘 1> (클로드 베리 감독, 이브 몽탕, 제라르 드파르디의 출연) 3:40 일요필러 50 글로벌 특선다큐 4:4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5:35 세계테마기행(종합) 8:5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9:45 명의제 10:40 한국영화특선 <빈정> (정기훈 감독, 고수, 한효주 출연)
6:00 열린음악회 7:00 KBS 뉴스 10 이슈 픽 쌤과 함께 8: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15 1박 2일 8:05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8:30 스트레이트	6:05 복면가왕 7:55 MBC 뉴스데스크 8:30 스트레이트	6:20 런닝맨 8:00 SBS 8뉴스 30 TBC 8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금토드라마(법편)(재) 12:15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재) 1:45 네트워크특선
9:00 KBS 뉴스 9 40 역사자널 그날 10:30 예셀의 전당 11:20 환경스페셜2(재) 12:10 KBS 뉴스 20 시사 직격(재) 1:10 사람의 가족(재)	9:25 걸어서 환장 속으로 10:55 더 시즌즈 -박재범의 드라마인- 12:25 이별의 리콜이 되나요?(재) 1:45 KBS 재난방송센터(재)	9:10 물 건너온 아버지 10:45 구해줘! 홈즈 12:35 다섯 개의 다이아몬드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금토드라마(법편)(재) 12:15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재) 1:45 네트워크특선	

KBS 0531/757-7321 MBC 0531/740-9500 TBC 0531/760-2000 EBS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주)이피씨 021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11:00 V리그(여부)KGC인삼공사-한국생명 17:50 여자프로농구 하나원큐-삼성생명 22:30 V리그(남부)KGS해운대-OK금융그룹 (5일) 12:00 위스타트재능 2023 설날장사씨를대회 15:50 V리그(여부)KGC인삼공사-페퍼커피은행 18:00 EVERYDAY 스포츠V 22:30 V리그(여부)KGC인삼공사-한국생명	11:00 엔스플인 캠프 2023 18:00 여자프로농구 하나원큐-삼성생명 23:30 엔스플인 캠프 2023 (5일) 11:30 크라운해태 PBA 챔피언십 2023 16: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HL 19:30 엔스플인 캠프 2023 24:00 스포츠스타 인 사이판	12:10 2022 KPGA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FR 17:40 인천권의 인생샷 24:00 셀랑가르 국제 주니어 골프대회 (5일) 12:10 2022 KPGA 대우 유나이티드 M&W 오픈 FR 16:4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HL 21:10 당신이 골드를 못하는 이유4 24:00 LG전자 박세리 월드컵매치	11:25 크라운해태 PBA 챔피언십 18:30 V-리그 여자부 페퍼커피은행-KGC인삼공사 21:20 22-23 ISU 쇼트트랙 월드컵 메달 뽐내기 (5일) 11:25 크라운해태 PBA 챔피언십 15:50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BK7인은행 20:10 22-23 ISU 쇼트트랙 월드컵 금메달 뽐내기 21:20 22-23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OCN	스크린	SBS Biz	매일경제 TV
10:40 담보 17:20 최정병기행 24:40 범죄도시2 (5일) 11:20 트와일라잇 16:10 국제수사 18:20 미생: 그들이 있었다2 21:00 신의한수: 귀수편	11:35 CSI:NY2 18:00 21브릭사: 테라셋다운 22:15 셉틴 (5일) 11:45 CSI:NY2 15:30 연모 17:40 연모2 21:45 육사아	12:00 용감한 토크쇼 작설 18:00 한문철의 블랙박스 23:00 필살기 고수대전 (5일) 10:00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15:00 인문학 특강 19: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3:0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12:00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16:30 더 큐 20:00 건강백세 스페셜 (5일) 12:00 새터데이 주식 상담쇼 16:00 더 큐 19:00 역전의 부자남부 20:00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드라마 Plus	YTN
12:30 삼남매가 용감하게 18:10 영화가 좋다 23:10 신상출시 편스토랑 (5일) 11:30 살림하는 남자들2 15:40 무엇이든 물어보살 17:00 삼남매가 용감하게 23:40 배틀트립2	12:00 복두의 계절 19:00 전지적 참견 시점 22:00 여사와 한국은 처음이지? (5일) 11:20 복두의 계절 16:00 전지적 참견 시점 21:10 나 혼자 산다 24:40 복두의 계절	10:2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7:00 신발 벗고 씹는 인생 23:10 법편 (5일) 11:40 미운 우리 새끼 15:30 트롤리 19:30 나 혼자 솔로 24:10 법편	11:50 뉴스와이드 19:20 글로벌 NOW 23:50 자정뉴스 (5일) 11:50 뉴스와이드 15:50 뉴스와이드 19:50 YTN24 23:50 자정뉴스
MBN	TV조선	JTBC	채널A
10:40 불타는 트루맨 스페셜 17:00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 23:00 속물야쇼 동치미 (5일) 10:40 특종세상 17:00 나는 자연인이다 20:20 불타는 트루맨 스페셜 23:00 알토란	11:00 기적의 인생 17:50 마스터로봇2 새로운 전설의 시작 21:10 빨간 풍선 (5일) 12:50 강적들 17:40 빨간 풍선 19:50 스타다큐 마이웨이 21:10 빨간 풍선	10:50 한불리 17:50 JTBC 뉴스룸 22:30 대행사 (5일) 11:55 JTBC 이 시각 뉴스를 16:30 대행사 19:40 동치미 찬다2 22:30 대행사	12:10 토요 행진쇼 17:50 일일잡담: 혼돈의 지구방위대 22:20 도시야부4 (5일) 12:10 뉴스A LIVE 16:30 결혼 말고 동거 19:00 뉴스A 23: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투니버스	JET2	tvN	디스커버리
12:00 극장판 안녕자두야 18:00 네모바지 스폰지밥13 22:00 소드아트온라인 (5일) 11:00 이상한 과학자가 천천당2 16:00 포켓몬스터W 21:00 네모바지 스폰지밥9 24:00 소드아트온라인	11:00 바다탐험대 옥토넷 18:00 알쓸말잘 캐치! 티니핑 22:00 고스트 게임: 디지털 (5일) 11:00 극장판 바다탐험대 옥토넷 15:30 인싸가족 시즌2 19:00 슈퍼매일과 인싸레인저 23:00 밍고발발 프렌즈	12:40 유 퀴즈 온 더 블록 16:00 일타스캔들 24:40 미생: 그들이 있었다2 (5일) 11:00 일타스캔들 16:10 유 퀴즈 온 더 블록 19:40 코미디 빅리그 24:10 별거벗은 세계사	12:30 극한초보 16:00 지구를 빼앗는 도깨비 21:50 크리미 퀴즈쇼 풀어미러 (5일) 12:40 요즘 육아: 급속같은 내세끼 15:10 유니콘 하우스: 스타트업 전쟁 19:50 김용명의 쓸쓸한 이중생활 23:00 디스커버리 스페셜
cpbc TV	불교BTN TV	CGN TV	CTS 기독교TV
12:00 닳기도와 전례 18:00 저녁기도와 전례 22:00 기도를 부탁해 (5일) 11:20 세계의 성당을 가다 15:00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씬 19:00 가톨릭교 23:20 가톨릭 영성교리	12:00 화두의 바다 선포연설 17:00 행복한 오늘 22:00 BTN 뉴스 (5일) 11:30 생활 속 영불수행 16:00 진부터 종사의 보리심 18:00 저녁예배 22:50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12:20 갯통 18: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차유집회 23:30 생명의 숲 (5일) 11:3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3:5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7:40 성경 속 화해이야기 21:0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2:00 CTS 아가리교회 16:0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22:30 주성민 목사의 주일집회 (5일) 11:00 생명의 시간 16:00 생명의 말씀 19:00 생명의 말씀 23:20 생명의 말씀
사이언스 TV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BBC World	CNN Int'l
12:00 황금나침반 18:30 글로벌 탐험 최강기업 24:00 최고의 기술 과거 VS 현재 (5일) 11:40 추적 몬스터 15:20 야생의 강자 20:00 과학 속 인문학 The 지식충전소 23:00 다큐S프라이밍	11:40 Airport Below Zero 17:10 Epic Trails 2 22:00 Atlantis Rising (5일) 12:35 Primal Survivor: Over The Andes 15:20 Atlantis Rising 18:05 Bangkok Airport 23:00 Primal Survivor	12:00 BBC World News 18:10 Queer Egypt Under Attack 22:30 The Travel Show (5일) 12:00 BBC World News 15:30 The Travel Show 18:30 Amol Rajan Interviews 23:30 Wonders of Azerbaijan	12:00 CNN Tonight 17:00 CNN Newsroom 23:00 Smerconish (5일) 11:00 World Sport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3:00 State of the Union
EBS플러스1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BBC World	CNN Int'l
5: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6:4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7: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지구과학 I 8:2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9:1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화학 I 1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사 1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기하	11:40 Airport Below Zero 17:10 Epic Trails 2 22:00 Atlantis Rising (5일) 12:35 Primal Survivor: Over The Andes 15:20 Atlantis Rising 18:05 Bangkok Airport 23:00 Primal Survivor	12:00 BBC World News 18:10 Queer Egypt Under Attack 22:30 The Travel Show (5일) 12:00 BBC World News 15:30 The Travel Show 18:30 Amol Rajan Interviews 23:30 Wonders of Azerbaijan	12:00 CNN Tonight 17:00 CNN Newsroom 23:00 Smerconish (5일) 11:00 World Sport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3:00 State of the Union
EBS2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BBC World	CNN Int'l
6:00 안녕하세요 케레아 7:00 왕초보 영어 8:00 매일 10분 영어 9:00 최고다! 호기심딱지 30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10:15 블루이 12:00 유인극장 16:10 명의 17:05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18: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한국의 돌래길 20:20 EBS 교육진단 21:10 극한직업 22:00 EBS 비즈니스 리뷰 15 클래스 e (3) 23:5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40 Airport Below Zero 17:10 Epic Trails 2 22:00 Atlantis Rising (5일) 12:35 Primal Survivor: Over The Andes 15:20 Atlantis Rising 18:05 Bangkok Airport 23:00 Primal Survivor	12:00 BBC World News 18:10 Queer Egypt Under Attack 22:30 The Travel Show (5일) 12:00 BBC World News 15:30 The Travel Show 18:30 Amol Rajan Interviews 23:30 Wonders of Azerbaijan	12:00 CNN Tonight 17:00 CNN Newsroom 23:00 Smerconish (5일) 11:00 World Sport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3:00 State of the Union
방송대학 OUN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BBC World	CNN Int'l
9:00 일본어 기초 2 11:15 일본어 기초 2 13:00 미인공감 3 20:20 EBS 교육진단 21:10 극한직업 22:00 EBS 비즈니스 리뷰 15 클래스 e (3) 23:5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40 Airport Below Zero 17:10 Epic Trails 2 22:00 Atlantis Rising (5일) 12:35 Primal Survivor: Over The Andes 15:20 Atlantis Rising 18:05 Bangkok Airport 23:00 Primal Survivor	12:00 BBC World News 18:10 Queer Egypt Under Attack 22:30 The Travel Show (5일) 12:00 BBC World News 15:30 The Travel Show 18:30 Amol Rajan Interviews 23:30 Wonders of Azerbaijan	12:00 CNN Tonight 17:00 CNN Newsroom 23:00 Smerconish (5일) 11:00 World Sport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3:00 State of the Union

제일레저를 검색하세요 ▼ 검색

www.jeilleisure.co.kr

전국 최고의 낚시매장 600평 초대형 매장

이월상품 · 특가상품 · 중고상품
(참자는 낚시대 보상으로 교환)

낚시용품전문점
제일레저
 대구 동구 팔공로 535 (지묘동 83-1)

고객문의센터
(매장 연중무휴)T. 1644-4496
H. 010-6569-5524



김문환의 세계사

서낭당 주술...몽골 초원 어워, 티베트 다르초와 룡타

성황님! 순이는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짖으며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왔다.” 1937년 조선일보에 발표한 정비석의 「성황당」(城隍堂) 끝 장면이다.

“...성황당에 돌을 던져서 제발 남편이 신발과 땀기 사오기를 축수하면서... 순이는 이 세상 모든 재앙과 영광은 성황님이 주시는 걸로 믿는다. 아! 성황님!

서낭당·몽골 초원 돌탑 옆 ‘오색 천’ 풍습 유래는?



중국 내몽골자치구 역사 도시 오르도스에는 초대형 오르도스박물관을 만들어 돌탑에서 펼쳐지던 풍습을 세밀하게 복원해 놓았다. 돌탑 주변에 오색 천으로 만든 기를 꽂고, 돌탑을 돌고, 마유주를 바치고, 절을 하면서 기원 행사를 치른다.

중국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서낭당을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원주형으로 쌓아 놓은 돌무더기 형태로, 곁에는 신성시되는 나무 또는 장승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돌·나무·오색 천 등을 놓고 지나다녔다’고 소개한다. 정초에는 액운을 몰아내고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 유라시아 몽골 초원과 티베트, 한반도에 걸친 주술(呪術) 문화의 상징, 서낭당(성황당)의 기원을 문화교류사 측면에서 살펴본다.

◆몽골 초원 서낭당, 어워

소설 「성황당」에 순이가 남편 현보와 숲을 구우며 성황님을 믿고 살던 곳은 평안북도 압록강변 산골이다. 고려 시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龜州大捷)이 펼쳐진 귀성과 정비석의 고향 의주에 가깝다. 압록강을 넘어 북경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 중국 내몽골자치구 정란치(正藍旗)로 가보자. 고려 고종의 아들 원종이 태자 시절 1259년 몽골 쿠빌라이 칸에게 찾아가 항복을 알렸던 도시 상도(上都·자나두) 유적이 나온다.

고려의 숨결도 어린 상도 유적지 박물관 언덕에 돌탑이 높이 솟았다. 압록강 남쪽에서 순이가 빌던 것과 같은 형태의 돌탑이다. 상도에서 북으로 올라가 몽골의 현재 수도 울란바토르로 가보자. 차를 타고 시가지 북쪽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고갯마루에서 돌탑과 만난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잔돌을 쌓은 돌무더기다.

함께 간 몽골 택시기사는 작은 돌 몇 개를 주워 돌탑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았다. 손을 모아 무사 안전 운행과 행운을 빌었다고 들려준다. 몽골 지역 여기저기 다녀 보면 가는 곳마다 작은 돌무더기 탑들을 마주한다. 몽골에서는 작은 돌을 쌓아 길흥화복을 비는 돌탑을 ‘어워’(Owoo)라고 부른다.

◆유라시아 돌탑, 오보

만주 서쪽 내몽골을 비롯해 몽골 초원에서 동유럽 헝가리까지 끝없는 초원 지대를 초원의 길(Steppe Road)이라 부른다. 실크로드(Silk Road)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유라시아 동서 문화 교류의 통로다. B.C 2000년 이후 기마문화, 고인들의 거석문화가 그 길을 통해 흑해 연안에서 몽골 초원, 만주, 한반도로 들어왔다.

B.C 5세기 이후 스키타이족의 황금문화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몽골 초원의 훈(匈奴)족과 돌궐(突厥)족, 칭기즈 칸의 몽골은 말을 몰아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짓밟았다. 몽골인들이 ‘어워’라고 발음하는 돌탑을 공식 학술용어로는 오



국립민속박물관 서낭당.

보(Ovoo, Obo)라고 칭한다.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돌을 쌓아 만든 돌탑은 물론 돌 제단을 아 유른다.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단군이 쌓았다는 돌 제단 참성단(塹星壇) 역시 유라시아 대륙 돌 제단 즉 오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제를 올렸다. 돌탑이나 돌 제단에서는 주술 의식이나 제사가 치러졌다. 몽골 초원에서는 어떤 의식이 펼쳐졌을까?

◆돌탑 옆에 오색 천 ‘하닥’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역사 도시 오르도스로 발길을 돌려보자. 초대형 오르도스 박물관은 돌탑에서 펼쳐지던 풍습을 세밀하게 복원해 놓았다. 복원된 돌탑 주변에 오색 천으로 만든 기가 꽂혔다. 남색, 적색, 황색, 녹색, 백색 깃발이다. 남색은 짙빛, 초원의 맑고 푸른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빛난다. 적색 천이다.

황색 천은 땅, 녹색 천은 초원을 상징한다. 백색은 무엇일까? 말젖이다. 기마민족에게 말젖은 생명과도 같다. 초원 곳곳에서 마주하는 돌무더기 옆 나무 기둥에도 주로 남색의 푸른 천을 비롯해 녹색, 흰색, 황색, 적색의 오색 천을 매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소개하는 서낭당의 돌무더기와 신목(神木)의 오색 천은 몽골 초원 어워와 닮은꼴, 판박이다.

오색 천을 몽골인은 ‘하닥’(Khadag)이라고 부른다. 하닥이라는 오색기를 꽂고, 돌탑을 돌고, 99마리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마유주를 바치

문화 교류로 ‘닮은꼴’ 주술 상징
몽골 길흥화복 비는 돌탑 ‘어워’
남색 적색 황색 녹색 백색 천 ‘하닥’

네팔 보드나트 사원 만국기 ‘룡타’
나무에 올긋불긋 천 휘감은 ‘다르초’

티베트불교서 기원된 한 뿌리 풍습
고려 충렬왕부터 100년간 장락결혼
몽골식 변발·몽골어·풍습 전해져

고, 절을 하면서 기원 행사를 치른다. 몽골 초원에서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비롯해 각지에서 천을 매달아 주술 행위에 활용하는 사례를 목격했다. 몽골 초원을 넘어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돌탑 옆에 천을 매는 풍습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티베트와 네팔의 룡타, 다르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 보드나트(Bodhnath)로 가보자. ‘보드’(Bodh)는 ‘깨달음’을, ‘나트’(Nath)는 ‘사원’을 가리킨다. 깨달음의 절, 보드나트 사원은 온통 오색 천으로 뒤덮였다. 우리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운동장을 가로지른 만국기와 비슷하다. 가로로 길게 내건 줄에 천을 매단 형태의 깃발을 ‘룡



네팔 카트만두 보드나트 사원의 룡타. 보드나트 사원은 힌두교 국가 네팔에 있는 티베트불교 성지다.

타’(Lunh ta)라고 부른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원지, 원숭이 사원으로 가도 절 내부는 물론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 절까지 룡타로 뒤덮였다. 네팔은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지만, 지금은 힌두교 국가다. 인구의 87%가 힌두교도다. 보드나트 사원, 원숭이 사원은 티베트불교의 성지다. 룡타는 네팔이 아닌 티베트 기원의 풍습이다. 나무를 세우고 천을 매단 ‘다르초’(Darchorg) 역시 티베트 주술 풍습의 하나다.

해발 8,848m 에베레스트는 중국 지배하 티베트와 네팔 국경에 자리한다.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19세기 측량 담당 영국인 조지 에베레스트(G. Everest)에서 따왔다. 에베레스트 본인은 자신의 이름 명명에 반대했지만,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1865년 그의 이름을 붙여 세계 최고봉으로 지정했다. 티베트에서는 ‘초모룡마’(Chomo Lungma-어머니 신)라고 부른다.

중국어로 ‘주무랑마’(珠穆朗瑪·주목랑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출신 영국인 에드먼드 힐라리와 네팔인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네팔의 남쪽 사면에서 처음 오른(중국 티베트의 북쪽 사면 등정은 1960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르초가 세워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티베트 각지 고산지대에서는 지금도 올긋불긋 천이 휘감긴 다르초를 세우거나 룡타를 늘어 달고 소원을 빈다.

◆티베트불교 풍습 몽골 제국으로 전파

고대 인도 신앙에서는 선신(善神) 데바(Deva)와 악신(惡神) 아수라(Asura)가 싸운다. 이는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법 내용을 천에 적어 악신을 물리치는 형식으로 진화한다. 천을 활용했던 부처님의 행위가 현실에서 불경을 적어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정착된 것은 11세기경이다. 7세기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며 최강 국력을 형성했던 티베트왕 송첸캅포는 불교를 받아들여 티베트불교를 창시했고, 여기에서 천에 소원을 적는 풍습이 나왔다.

13세기 지구상 최강 제국을 일군 몽골이 티베트를 점령하고, 티베트불교를 받아들인다. 이때 티베트의 풍습을 배운다. 몽골 초원의 돌탑에 천을 매단 나무 다르초가 더해지며 어워, 즉 몽골식 서낭당이 완성된다.

서낭당의 기원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 전통 설, 6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 선비족의 북제(北齊) 때 성(城) 수호신인 성황(城隍) 영향설이 있다. 몽골 유입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1259년 이후 공민왕(재위 1352~1374년) 재위 초까지 100여년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였다.

원종의 아들 충렬왕부터 고려왕은 몽골 대칸의 사위였고, 고려 왕자들은 외가인 몽골 원나라의 대도(북경)에서 자랐다. 몽골식 변발에다 몽골어를 사용했다. 다양한 몽골 풍습과 함께 서낭당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문화교류와 다문화 측면에서 서낭당의 새로운 면모가 엿보인다.

역사저널리스트

K드라마와 대장동 드라마

광장



김경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
(공연문화전문가)

미국의 방송드라마에 대한 권위 있는 상인 에미상 6개 부문을 석권한 넷플릭스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냉혹한 자본 경쟁의 기형적인 세계와 양극화된 현상을 담아내면서 세계 무대로 진입했다.

막대한 수익보다도 대한민국 문화의 격(格)과 위상(位相)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드라마뿐인가. 영화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와 윤여정, 이정재, 봉준호 등은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그 자체다. 요즘은 김은숙 작가의 '더글로리'와 강수연 배우의 유작인 '영이'가 K

콘텐츠 1, 2위 상한가를 달리며 세계의 시선을 '심쿵'거리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를 상상력으로 채우면서도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타격해 내는 스토리 라인의 장면 속도와 등장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의 상상력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K드라마가 현실과 비현실 세계의 경계에 있는 스토리라면 '대장동 드라마'는 현실판 국민 드라마였다. 요즘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재점화되면서 정치권발(發) 국민 드라마 팬성이 높아지고 있다.

측근들 구속으로 진술은 작가적 상상력이 넘쳐나고 등장인물도 주·조연에서 단역까지 웬만한 드라마 줄거리 못지않게 구성이 탄탄하다. 대장동 드라마 시즌 1 스토리는 유동규 구속 전까지의 사태와 법정 진술의 공방을 다루면서 대장동 사태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최고 시청률 드라마는 유행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때 국민 유

행어가 된 광고 카피는 '부자 되세요'였다. 패러디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조롱의 유행어로 대박을 터트렸다. K드라마보다도 숨 막히는 극적인 긴장감은 국민 시청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재미의 핵심은 국민 드라마 대장동 사태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들의 전쟁과 반전이 었다. 희한하게 돈은 넘쳐나는데 주인이 없었다. 1%의 지분율을 가지고 4천억 원 이상 막대한 이익을 분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들의 수익률과 1호 '그분'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연극과 드라마의 '플롯'은 작가가 그리는데 대장동 개발 '플랜'의 저작권 논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시즌 1을 끝냈다. 국민은 아쉬워했다.

시즌 2는 등장인물들의 말들의 전쟁이 펼쳐지며 반전의 칼날을 다루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최측근들의 구속 사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인물을 중심으

로 펼쳐지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공 '그분'의 진실을 밝혀내는 극적인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시즌 2를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수두룩하다. 쌍방울과 대북 송금, 위례신도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대장동 드라마의 보조 스토리 라인은 대하드라마 수준으로, 구성부터가 다르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스토리 측은 '그분'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그분의 뇌관(雷管)이 터지면 국민 드라마를 넘어 K드라마로 긴급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은 '코리아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향후 총선과 장기적인 대선의 길목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폭발물이 점화되고 있고, 국민은 대장동 사태와 대하드라마 사법 리스크의 주인공과 그분의 비밀을 밝혀내는 종방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태와 유동규 일으로 그분의 실체가 모락모락 흘러나오며 여전히 소설과 현실 사이에서 극적인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 '그분'이여'.

사설 社説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보는 지지층의 근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과 진영 간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포기 후 안철수의 원 지지율이 오르자 친윤(親尹)계는 안 의원을 향해 "가짜 친윤팔이" "윤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의 뜻은 안 의원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에 질세라 안 의원도 "최근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 당원들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권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여당이 줄곧 뻔한 정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사실상 결별, 이준석 전 대표를 퇴진시키는 과정의 갈등,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력 부재와 노골적인 압박 등 정부 여당 핵심 그룹이 자꾸 적을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좌파 정부 등장, 좌파 정부의 횡포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트라우마의 시작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과 총선 패배였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대권을 꿈꾸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내치려고 했다. 그 대립 과정에서 '자기 정치' 논란, '옥새 파동'이 발생하고, 새누리당은 대승할 수 있는 선거에서 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

당권 경쟁 과정에 싸움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정도(程度)가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이 서로가 서로를 '원수' 또는 '배신자'로 규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집권에 성공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거대 야당이 '집권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온갖 사법 리스크로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자신도 검찰 소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까지 자신들의 정치 자산으로 보호한다.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완전한 내 편이 아니라고, 흠이 좀 있다고 당내 자신들을 마구 쳐내도 좋을 만큼 자신들에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경쟁자는 당권 주자도, 야당도 아닌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내 갈등으로 보수 정권이 흔들리는 역사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

구미 방문尹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발전 키워드

수출 도시 구미가 10년 정제 국면 끝에 지난해 이후 대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모색하고 있다. 구미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으로서도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이다.

지난 1일 구미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행사들이 잇따랐다. SK실트론의 반도체 소재 공장 투자 협약식도 그중 하나다. SK실트론은 경상북도·구미시와의 협약식을 통해 1조2천360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실트론은 아울러 구미에 2028년까지 총 2조3천억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후 LG화학(구미형 일자리), LG이노텍에 이어 굴지 대기업을 역대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니 지역에는 청신호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민들은 이날 행사가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유치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한다면 구미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국가산단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자반도체산업 대표 도시로 우뚝 섰던 옛 명성의 회복

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중추 기구의 출범 회의를 구미에서 연 것이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이 대거 참석해 국무회의를 방불케 했다.

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인재 확보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지역에서 양질의 인재를 키워 역대 기업에 공급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 구미는 물론이고 경북과 대구도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공급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역대 기업에 취업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야고부
野鼓賦

'히로폰'(ヒロポン·히로뽕), '페르비탄'(Pervitin).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이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들에게 투여한 메스암페타민계 약물 이름이다. 1893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의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가 처음 발견했고, 그의 제자인 오가타 아키라(緒方章)가 1919년 결정화에 성공했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흥분제의 일종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우울증을 해소해주며 피곤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런 효능에 주목한 일본 군부는 1931년 만주사변 때부터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1941년부터는 '다 이닛폰 제약'(大日本製藥)이 민수용으로 출시해 군수공장 노동자와 기술자에게도 공급했다. 히로폰이라는 제품명은 그리스어 'Philos'(필로스·사랑하다)와 'Ponos'(포노스·노역)를 합성한 '필로포노스'(Philonos·노동을 사랑한다)에서 따왔다.

나치 독일에서는 1938년 테슬러 베르케라는 제약 회사가 '페르비탄'이란 제품명으로 출시해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1939년 폴란드 침공 때부터 병사들에게 보급돼 종전 때까지 무려 2억 정 이상이 생산됐다. 이 약물을 먹은 병사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도 며칠씩 행군했으며 특히 야간 폭격에 나선 조종사들에게 졸음 방지 약으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독 증상과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1941년부터는 공식적인 보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고 처리를 위해 전후에도 판매가 계속돼 1940년대 말에는 필로폰 중독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인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와그너(Wagner) 그룹 용병들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용병들이 기관총을 아무리 쏘도 죽지 않고 한참 지나 피가 전부 쏟아져야 쓰러진다"는 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체험담을 전했다. 이 병사는 이들을 '좀비'에 비유하며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병사를 전쟁 도구로 갈아 넣은 구 일본 제국과 나치의 광기가 푸틴의 러시아에서 부활하는 것 같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maeil.com



오늘의 역사

1789년 2월 4일
미국 초대 대통령에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아메리카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뽐냈던 그는 영국군과의 여러 차례 격전 끝에 요크타운에서 콘월리스 장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이후 그는 제헌 회의를 이끌면서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으며, 결국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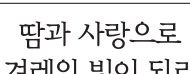


됐고 3년 후 제2대 대통령에 또 다시 선출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매일신문
The Maeil Shinmun



매일신문
www.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정훈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대표팩스	053)255-8902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통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광고·인쇄·안내	080-711-2001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다서 부차되자 대형,대형견인차
(츄레라)

면허다서 행복하자 소형견인차,2종소형
(카라반) (오토바이)

N 대구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학원 자체시험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수목원같은 쾌적한 교육장

Since 1968

55년 전통의 고품격 명문학원

053.314.8888

3호선 팔달역/팔달교 옆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NAVER 최원프리모 검색

명장가발

가발 쓰면 덥지 않습니다.
 흘링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명도 타제품보다 오래 갑니다.
 스타일도 자연스럽습니다.
 가발 쓰고 샤워나 목욕 해도 됩니다.
 티가 안납니다.
 가발 쓰고 CT나
 MRI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최원희 명장 본인도
 탈모로 고민하다 개발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제330호 최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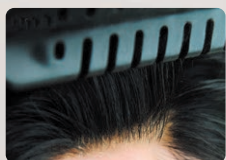
대한민국 명장 최원희
 최원프리모

항암가발
 50%할인

덥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수명이 길고
 스타일은 자유자재 내 마음대로
 가발을 착용하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숱 조절이 가능하여
 처음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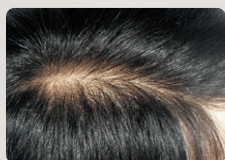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36건 보유

대한민국명장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명장가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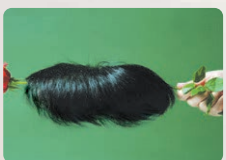
표나지 않는 앞 이마라인

앞 이마라인이 본 머리
 카락처럼 매우 자연스
 러워 가발이라는 느낌
 이 전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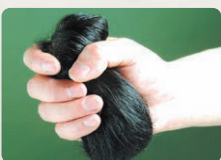
자연스런 가르마

빛으로 빛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 나
 는 가르마는 머리카락
 이 흐트러져도 자연스
 럽다. 손질하지 않아도
 가르마가 되살아난다.



숨털 같은 가벼움

가발의 무게는 약 10g.
 숨털처럼 가벼워 가발
 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부드러운 형상기억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뛰어난 가발을 착용하
 고 잠을 자거나, 목욕
 이나 수영을 한 뒤에도
 가발은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 되돌아온다.



얇아서 뛰어난 착용감

자연모를 최신기술의 인
 공두피인 특수소재에 심
 어 가발의 두께는 매우
 얇다. 내 머리에 꼭 맞는
 1대1 맞춤가발이라 착용
 감이 뛰어나다.



인체공학적인 환기성

인체공학적으로 섬세하
 게 만들어져 모발과 맞
 닿은 초극세화한 구멍
 이 땀구멍의 역할을 해
 서 환기성이 비약적으
 로 향상되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산업표창 제7150호 수훈

탈모로 고민하던 제가
 직접만들어 써보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명장가발
 최원프리모
 Since 1982

대구반고개본점 **확장이전** 053) **522-9000, 629-8888**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63(내당동 75-35) 지하철2호선 내당역 4번출구에서 300m 직진
 버스: 156, 250, 323-1, 509, 성서2, 급행6 버스정류장 반고개 하차

■전국 1577-0450 ■여의도점 02)780-8993 ■강남점 02)3448-8888 ■창원점 055)274-5858